



서울대병원의 뿌리 제중원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입원으로 촉발된 모교 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제중원 뿌리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동창회보는 모교 병원 의학역사문화원의 도움을 받아 제중원의 진실을 들여다봤다. 사진은 모교 병원의 전신인 대한의원 모습. <관련기사 2~3면·사진제공=모교 병원 의학역사문화원>

“국회의원 당선 축하합니다”

4월 재·보궐선거서 동문 3명 당선



安相洙동문



金正培동문



申相珍동문

지난 4월 29일 서울 관악을 등 네 곳에서 치러진 2015 상반기 재·보궐 선거 결과 3명의 동문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인천 서구 강화군 을에 출마한 安相洙(체육교육71-75·새누리당)동문, 광주 서구을의 金正培(법학72-76·무소속)동문,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申相珍(의학79-91·새누리당)동문이 그 주인공이다.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安相洙동문은 3만3천2백56표를 득표해 2만6천3백40표 득표에 머무른 申東根후보자를 6천9백16표의 큰 표차로 눌렀다. 安동문은 지난 제15대 국회, 인천 계양구 강화군 갑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으며, 이후 민선 3, 4대 인천광역시장을 지낸 바 있다.

金正培동문은 개표 결과, 전체 투표인 가운데 유효투표 52.4%의 지지율을 얻어 29.8%에 그친 趙永澤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경기 안산을)에 당선된 후 2012년까지 내리 4선 의원을 지냈으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엔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의 申相珍동문은 55.9%(3만6859표)의 득표율로 다 후보를 압도하며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다. 申동문은 제19대 국회의원 타이틀을 거머쥐며 3선 고지를 정복했다.

한편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4기 졸업생들의 재판연구원(로클럭) 및 검사 임용 순위에서 모교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모교는 재판연구원 8명(총정원 66명)과 검사 10명(총정원 39명)으로 함께 18명을 배출했다. 경영전문지 월간 현대경영이 지난 3월 주총을 통해 확정된 국내 1백대 기업의 CEO 1백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모교 출신이 48명(36.1%)으로 가장 많았다.

관악출추

투표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해야 할까? 며칠 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한 현상이라고 지적하는 글을 읽었다. 권위주의 시절 興村野都 현상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세금 낼 걱정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지 정책에 반대하는 쪽을 더 지지해왔으나 최근에는 바로 잡혔다고 그 필자는 지적했다.

그는 내심 ‘무식해서 무엇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인지도 모르다 이제야 開明했다’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사실 그런 점도 있다. 고무신 한 켤레, 막걸리 한 사발에 표를 팔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손해 보는 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한국인은 이익을 너무 쟁기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廉恥

라는 것이 있다. 특히 공적인 일에서는 더하다. 국가대사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자기 이익만 따지느냐는 명분론이 발목을 잡는 것이다.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전체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그쪽을 선택할 사람이 많다.

특히 서울대 졸업생은 나름의 召命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서울대생이 들으면 ‘잡난 체한다’며 고개를

법인화와 소명의식

들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서울대생으로 선발된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대한 의무감을 떨칠 수 없다.

올해는 개학 120년을 맞는다. 통합개교 69년이다. 서울대 법인화는 그 120년 역사에서 그려진 커다란 획 가운데 하나다. 국립대학이라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연구와 인사, 재정을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세계

정상급 대학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법인은 출범했다.

법인화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그럼에도 대학 측의 헌신적 노력으로 잘 진행됐다. 많은 동문들의 평가도 성공적이란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모자란 점이 없지 않다. 우선 무엇이 달라졌는지 느끼기엔 변화가 아직은 작다. 정부 지원금은 오히려 늘어나고, 그것을 미끼로 교육부의 입김이 거세다. 급여도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총장 선출 절차를 둘러싸고도 여전히 논란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법인화했는가, 근본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최고의 대학 구성원으로서 염치와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 권력을 다투고, 돈을 더 받으려고 법인화한 건 아니다. 법인다운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동문들의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활발한 연구와 우수한 인재 배출은 서울대의 소명이다. 좋은 대학을 만들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金鎮國 중앙일보 대기자·관악언론인회 회장·본보 논설위원>

느리나무광장

아사히신문사 초청으로 3박 4일 도쿄를 다녀왔다. 최근 2~3년 사이 일본에 서너 번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 악화되가는 한일관계 때문이다. 대형서점들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혐한(嫌韓)서적들이 서점 내에서도 눈에 띄는 매장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고 예전 같으면 길거리 노점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한류 스타들의 포스터는 눈을 찢고 찾아봐도 없다.

도쿄에서 만난 교민은 “한류 붐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얼마 전만 해도 TV만 틀면 한국드라마가 나왔는데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며 “일본인들의 집단주의 근성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너도나도 더 이상 한국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지 기업인들은 더 울상이었다. “전자제품에서부터 라면까지 한국 상품 매출이 20~30%가량 줄었다”는 거였다. 그들은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피해자는 결국 한국이라는 것을 위정자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긴 한국은 대외무역비중이 80%가 넘는, 수출 없이 살 수 없

는 나라이지만 일본은 20%대에 불과하다. 그들 스스로 말하는 대로 자급자족 경제가 가능한 나라이다.

일본에서 만난 교민들은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한 사업가는 “과거사나 독도문제는 단시일에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그걸 물고 늘어져서는 해답이 없다. ‘조용한 외교’를 한답시고 일본과는 대화의 문을 닫고 국제 사회에 호소를 하면 일본으로서도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시기를 놓친 감이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아베 총리가 약간 저자세로 나왔

을 때 못이기는 척 응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한다 해도 실익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일본 지식인들과 신문기자들 사이에서는 과거사를 왜곡하는 아베 총리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한 대학교수는 “일본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갈 경우 국제사회에서 선진강국으로서의 체면을 세울 수가 없다. 아베 총리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지적들이 지식인 사회에서도 팽배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들 “하지만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오래갈 것이라는 게 제일 우려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베를 떠받치는 지지율은 무엇보다 그가 취임하면서 내건 ‘강한 일본의 부활’이 허언(虛言)이 아니었음을 모처럼 활력을 되찾고 있는 경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기자가 도쿄에 체류하던 22일 니케이 지수는 15년 만에 2만선을 넘어서 일본 언론들도 달아올랐다.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느낀 것은 안타깝게도 ‘아베의 폭주’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었다. 한편으로 ‘잃어버린 20년’과 동일본대지진의 상처를 극단적 민족주의로 풀어보려는 일본 정치권과 국민들을 보며 ‘오죽했으면’ 하는 연민의 마음까지 생겼다. 어쨌든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 속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지식인들과 언론의 역할임을 거듭 깨달은 여행이었다.

일본을 연민한다

許文明

(가정관리86-90)

동아일보 국제부장

본보 논설위원



관악시단

비어 하늘 가득하다

權度重(ACAD 49기)시인

없어도 여기에서 비어 하늘 가득하다

구름이 바람 따라 수위 아래로 잠긴다

한 방울 물감이 구절초 핀 산천에 풀린다

당신이 집을 두고 바람으로 지낸다

편지를 써서 버린다 문득 바람 베인다

입술이 들쭉으로 앉아 길게 그늘로 간다

* 權동문은 李永道시인 추천으로 1974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했다. 시집으로 '낮은 직선', '네 이름으로 흘러가는 강', '혼자 가는 긴 강만으로는' 등이 있다.

동문칼럼

올해는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인 제중원이 문을 연 지 130주년이 되는 해다. 그런데 연세대의료원 교목실장 정종훈 교수는 한국일보 기고 ‘서울대 병원의 역사 왜곡’(2월 9일자 29면)을 통해 서울대 병원이 제중원과 관련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제중원의 진실은 무엇일까.

정 교수는 미국복장교회 의료선교사 알렌의 요청으로 제중원이 설립됐다고 기술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1880년대에 통리기무아문, 별기군, 육영공원 등을 설치하며 근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고종과 조선 정부는 의료 근대화도 추진했다. 1884년 ‘한성순보’를 통해 서양의학 교육을 강조했고, 미국감리회 선교사 매클레이에게 서양식 병원의 설립을 허락했다. 즉 알렌이 등장하기 전부터 고종과 정부는 서양식 국립병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제중원이 조선 정부와 미국 의료선교사들의 이중 협력구조였다는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 제중원은 외아문(지금의 외교부)에 소속된 국립병원이었다. 고종과 정부가 부지, 건물, 행정인력, 예산 일체를 마련했고, 제중원 운영 규칙도 작성했다. 당시 洋醫가 없어서 미국 의료선교사들에게 진료를 맡겼지만, 원장은 외아문 독관(장관)이나 협관(차관)이 겸직했다. 알렌 등 의료선교사들도 보고

서, 편지 등에서 제중원을 ‘정부병원(the government hospital)’이라고 기록했다.

1894년 9월 26일 조선 정부가 ‘제중원 운영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미국 복장교회 선교부(에비슨)에 이양했다는 언급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우선 위탁 배경이 중요하다. 1894년에 동학농민전쟁, 청일전쟁, 갑오개혁이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사건은 고종과 정부에게 치명적이었다. 이 위기에서 일본에게 제중원을 뺏기지 않으려는 교육지책으로 에비슨에게 제중원

운영을 위탁한 것으로, 소유권까지 양도한 것은 아니었다. 에비슨이 향후 제중원 개·보수에 사용한 비용을 조선 정부가 지불하지만 하면 제중원의 모든 자산을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그 근거다. 그리고 1904년 에비슨 등이 세브란스병원을 개원하자, 이듬해 대한제국 정부는 개·보수 비용을 지불하고 제중원을 환수했다.

제중원이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어졌다는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제중원 의료진이 세브란스병원으로 이동함으로써 제중원 운영이라는 경험적 자산이 전수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세브란스병원이 제중원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을까. 국립병원 제중원을 수탁 운영하던 사람들이 자금을 마련해 자기네 병원을 신



金相泰

(국사85-89)

모교 병원

의학역사문화원 교수

축하고 독립하면서 제중원을 반환하고는 ‘세브란스병원’이라는 새 공식 명칭과 ‘제중원’이라는 종전 근무지의 명칭을 병용한 경우다.

아울러 정 교수는 ‘조선 정부’(사실은 대한제국 정부다)가 세브란스병원에 재정 지원을 한 것이 세브란스병원이 제중원을 계승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905~1906년은 러일전쟁, 을사조약 체결, 통감부 설치로 이어지는 시점인 만큼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은 일본인들이나 친일관료들의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세브란스병원이 제중원을 계승했다는 주장은 자의적인 역사 해석이다. 그렇다면 서울대 병원은 제중원을 계승했는가. 서울대 병원은 제중원의 역사성을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다. 서울대 병원이 제중원

제중원의 진실

으로부터 계승한 가장 중요한 유산은 이렇다. 고종과 정부는 제중원에 두 가지 사명을 부여했다. 청년들에게 서양의학을 가르쳐 유능한 의료인으로 양성하는 것과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것이었다. 백성을 구제하는 집(관정)이라는 뜻을 지닌 濟衆院(제중원)이었다. 요약하면 국립병원 제중원의 사회적 책무는 서양의학 도입을 통한 의료 선진화와 전통시대 공공의료의 계승이었다. 이 과제는 130년이 지난 지금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도 이 땅의 공공국립병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숙명적 과제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徐廷和

편집인 金英豪

인쇄인 朴承熙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장학빌딩 주소: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1969@naver.com

홍보본부장 安興燮 편집장 金南柱 편집부 기자 邊延洙, 朴秀埭

학생기자 김성구(서양사13인), 김시현(국문10인), 김예원(언론정보13인), 박성연(국문11인), 박종석(사회복지석사과정), 박준모(언론정보09인), 방준휘(전기정보12인), 양진수(농경제사화09인), 이시원(독문14인), 이지은(정치외교15인), 최세진(의학전문대학원)

“제중원은 오늘날 공공의료와 국·공립병원 모태”

모교 병원, 濟衆院 130주년 학술강좌 개최

“제중원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고 모든 사람이 찾을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든 사람들은 당시 이 땅의 한국인과 조선 정부였다.”

모교 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제중원 뿌리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모교 병원 濟衆院원장은 지난 4월 3일 연건캠퍼스 임상1강의실에서 열린 제중원 130주년 기념식 및 학술강좌에서 제중원이 서양선교사가 아닌 정부의 주도 하에 설립됐음을 강조했다.

1885년 4월 3일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인 제중원의 개원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濟衆院장은 “식민지 수탈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당시 어떤 국가도 이처럼 주도적으로 서양식 근대 의학을 국립병원의 형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근대화와 새로운 의학에 대한 당시의 열망을 오늘에도 숙연히 기억하자”고 말했다.

이날 전남대병원장과 충북대병원장 등 국공립대병원 대표들은 제중원의 역사와 정신 이어달로 오늘날 공공의료와 국공립병원의 모태라며, 앞으로는 모든 국공립병원들이 함께 제중원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약속하기도 했다.

기념식에 이어 열린 학술강좌에서는 의학사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자로 나와 제중원의 공공성과 모교 병원으로의 연결성을 학문적 차원에서 입증했다.

모교 병원 의학역사문화원 崔銀暉교수는 ‘편지사료로 본 국립병원 제중원(1891-1905)’이라는 제목으로 제중원의 운영권 이관부터 환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1만장 가량의 미국 북장로교 편지사료 분석을 통해 발표했다.

崔교수는 “알렌이 조선에 오기 전에 이미 정부의 병원 설립 제안이 미국 북장로교 쪽으로 전달돼 선교본부에서 해론과 언더우드 의 과송을 준비했으며, 제중원 설립이 갑신정변과 알렌의 민영익의 치료에 따른 우발적인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빈튼과 에비슨의 제중원 업무 과업은 제중원 운영비에 대한 통제권을 얻기 위한 과업이었다”며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갑오개혁 내각 수립의 와중에서 선교지부가 운영권을 수중에 넣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선교지부는 운영권을 손에 넣은 후 무료진료 원칙을 포기했고 선교본부의 지원과 제중원 운영은 부실했으며 같은 시기 국립병원 광제원에 비하면 더욱 부실했다고



옛 재동 제중원 모습(현재 헌법재판소 북쪽, 홍영식 집을 개조)

주장했다. 그밖에 1906년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대한제국 정부의 지원금은 외국 공사들에 대한 선교지부 로비에 의해 이뤄졌으며 정부의 의지와 무관했다고 밝혔다.

모교 의대 인문의학교실 黃尙翼교수는 ‘근대 의학 도입과정에서 제중원의 의의’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서양이나 한국이나 전통시대 짧은 수명과 높은 영아사망률이 근대로 접어들면서 획기적으로 비싼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 가운데에 근대 의학을 도입하려는 주체적 노력들이 있었

다”며 “한국의 경우 가장 중요한 근대 의학 도입 경로는 조선인과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야 하며 제중원은 그 중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모교 병원 의학박물관장인 金玉珠교수는 ‘모교 병원의 역사’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개항기부터 시작된 국립병원의 역할을 모교 병원이 이어받아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혁신, 노력, 발전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가의 중추적 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金南柱기자)

광혜원과 제중원은 같은 병원일까요?



모교 병원 본관 우측 잔디밭에 조성된 제중원 드락

Q&A로 알아보는 제중원

Q : 알렌이 제중원을 설립했다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북장로회 의료 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은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 발발 당시 일본인을 제외하면 조선에 거주하던 유일한 洋醫였습니다. 그는 갑신정변 때 큰 부상을 입은 정계의 실력자 민영익을 치료했습니다. 그로 인해 고종과 명성황후의 신임을 얻게 됐고, 서양식 국립병원의 설립을 편지로 건의했습니다. 이렇듯 알렌이 제중원 개원에 기여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조선정부는 이미 근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양의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 알렌의 건의가 도움이 된 것입니다.

Q : 제중원이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맞는지요?

A : 자의적인 역사인식입니다. 제중원 의료진이 세브란스병원으로 이동함으로써 제중원 운영이라는 경험적 자산이 세브란스병원에 전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세브란스병원이 직접적으로 제중원을 계승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립병원 제중원을 수탁 운영하던 사람들이 자금을 마련해 1904년에 자기네 병원을 완공하고 독립한 후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병원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듬해에는 대한제국의 요청으로 제중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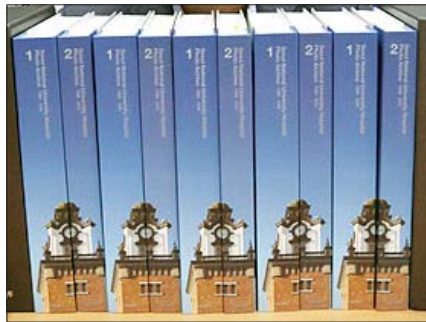
는 세브란스병원이라는 새 공식 명칭과 제중원이라는 종전 근무지의 명칭을 병용한 경우입니다. 제중원의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 세브란스병원과 선교사업을 활성화하고 싶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Q : 그럼 제중원과 모교 병원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A : 고종과 조선 정부는 국립병원 제중원을 설립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는 제중원 의학당을 설립해 총명한 젊은이들에게 서양의학을 가르쳐 유능한 의료인으로 키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을 구제하는 집(관청)이라는 뜻을 지닌 제중원(濟衆院)이었습니다. 요약하면 국립병원 제중원의 사회적 책무는 서양의학 도입을 통한 의료 선진화와 전통시대 공공의료의 계승이었습니다.

Q : 광혜원과 제중원은 다른 병원인가요? 헛갈립니다.

A : 같은 병원입니다. 조선 정부는 1885년 4월 12일부터 廣惠院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주일 후인 26일에 고종의 재가를 받아 광혜원이라는 명칭을 백지화하고 濟衆院이라는 명칭을 12일로 소급해 사용했습니다. 광혜원이라는 이름에 무엇인가 하자가 발견돼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충북 진천군에 광혜원(한자도 같음)이라는 국립 숙박기관(언제부턴가 지역 명칭이 됨)이 있어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는 광혜원이라는 명칭이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근대 학계에서는 제중원이라는 명칭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교 병원 역사 화보집 발간

2년 반의 준비 기간, 25만장 가운데 엄선한 3천5백장의 사진이 9백여 쪽에 걸쳐 실린 모교 병원 역사화보집 ‘꿈, 일상, 추억- 모교 병원 130년을 담다’(모교 병원 의학역사문화원)가 최근 발간됐다. 국내 첫 의학 근대사 화보집이다.

화보집 발간을 주도한 모교 병원 의학역사문화원 金相泰교수는 “1백30년의 모교 병원 역사가 곧 우리나라 의학의 역사라는 생각으로 관련 사진 25만장을 일일이 분석해 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화보에 실린 사진 3천5백장은 하나하나가 한국 근대 의료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담은 역사다. 특히 1905년에 발급된 의학교(지금의 의대)의 학년 진급증서 사진 등은 귀한 자료다.

당시엔 의대생들이 한 학년 올라가는 것도 진급증서를 받을 정도로 의대 졸업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 고종이 세운 국립병원인 제중원 사진과 제중원에서 일했던 의료선교사들이 쓴 각종 일기와 편지도 담겨 있다.

모교 역사 자료 수집에 동문 2백27명 기증



본회와 모교 기록관이 진행하고 있는 모교 역사 연구기록관 건립 자료 수집에 지난 4월 1~30일 8명의 동문이 추가로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 3월 31일 이전에 기증한 동문 2백

19명을 통합해 현재까지 총 2백 27명의 동문과 교직원이 소중한 자료를 보내왔다.

추가 기증자와 접수품은 다음과 같다.

▲김찬도(수원고농 졸업)동문 가족: 회고록 1~2권 ▲河斗鳳(생물52-56)동문: 27회 졸업기념 넥타이, 문리대 기념 머그컵(사진) ▲曹大京(심리53-57)동문: 졸업장, 인사발령통지서, 학생증 등 ▲金慧媛(영어교육56-59)동문: 졸업증명서 ▲李文雄(사회59-65)동문: 영상인류학 강좌 학생기말작품 영상비디오

테이프 등 ▲李興卓(영어교육59-64)동문: 60년대 영문학을 강의했던 George Rainer 교수 사진 및 서신류 등 ▲金永均(섬유공학71-75)동문: 청암사 감사패 ▲禹憲基(영문67-74)동문: 학생증

서울대학교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1. 수집 대상: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 1) 문서류: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 2) 시청각물류: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 3) 간행물류: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 4) 박물관류: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사패, 현관,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 5) 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 기간: 2015년 12월 31일까지(마감기일 연기)

3. 수집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의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전 화: 02-702-2233 팩스: 02-703-0755 E-mail: webmaster@snu.ac.kr
주 소: (151-01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415호
담당자: 김진현 대리 핸드폰: 010-7224-0755

서울대학교 기록관

전 화: 02-880-8819 팩스: 02-884-7149 E-mail: archives@snu.ac.kr
주 소: (151-01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자: 김봉은 전문위원 핸드폰: 010-3032-5913

5. 제공자 혜택: 역사연구기록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서정환·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장학 지원 등 동창회 사업에 써달라”

최고위과정 회원들 특별찬조금 보내와

최근 모교 최고위과정을 수료한 동문들이 본회에 특별 찬조금으로 4백여 만원을 보내왔다. 행사와 관계없이 평상시에 찬조금을 보내 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성원 이종후(AWASB 2기)대표 1백만원, 바로선병원 진건형(HPM 33기)원장 1백만원, 후파르마 한기서(AWASB 2기)대표 1백만원, 광득종합건설 崔光珠(ACAD 55기)회장이 1백만원을 비롯해 李潤錫(ALP 21기)국회의원, 라이프요양병원 전창린(AWASB 2기)대표가 각각 10만원을 찬조했다.

이종후 동문은 “수료식에 참석한 총동창회 사무총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장학 지원 등 동창회 사업에 조그마한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소액이나마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본회에 최고경영자과정(AMP), 최고산업전략과정(AIP) 등 25개 특별과정동창회가 조직돼 있으며, 위 과정을 수료한 회원은 약 2만8천명에 이른다.

이들 과정을 나온 동문 비율은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하지만 회비 기여율은 20~30%에 이를 정도로 높다. (金南柱기자)



2백60여 동문 등산대회서 친목 다져

공대동창회

공과대학동창회(회장 金載學)는 지난 4월 25일 서울 관악산에서 金載學회장, 모교 공과대학 李建雨학장을 비롯해 2백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춘계등반대회를 개최했다.

회원들은 301동에 집결해 관악산 도립천계곡-제3깎따고개-주능선을 거쳐 연주대를 등반했다. 등반을 마친 후 모교 공대 글로벌 공학교육센터 내 락구정에서 음식을 나누며 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를 위해 동창회에서 휴대용 미니 등산가방과 물병세트 등을 기념품으로 제공했다.



동문 가족 걷기대회서 봄기운 만끽

대구·경북지부동창회

대구·경북지부동창회(회장 李墻雨)는 지난 4월 4일 대구가톨릭대에서 동문 및 가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춘계 가족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봄꽃이 만발한 대학 교정을 거닐며 정겹게 환담을 나눴다. 특히 대구가톨릭대 총

장인 洪哲(경제65-69)동문의 배려로 학생기숙사 등 주요 시설들을 견학하고 교내 식당에서 뷔페식 오찬을 즐기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매년 봄철 개최되는 동창회 가족 걷기대회는 대구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 시내 근대골목 등 지역의 명소들을 찾아 동문 가족과 우의를 다지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朴秀瑋기자)

본보 판형이 10월호부터 바뀝니다

-타블로이드판에서 베를리너판으로-

그동안 동창회보를 애독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회는 올해 모교 개학 120주년을 맞이해 오는 10월호부터 동창회보 판형을 기존 타블로이드판형에서 베를리너판형으로 변경합니다.

베를리너판형은 기존 신문과 동창회보에 비해 크기가 인체공학적이고 읽기 편한 장점을 갖고 있

습니다. 기사와 광고가 더 크게 보여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최근 여러 매체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본보는 새로운 판형,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콘텐츠로 다양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동문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보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동문은 6월말까지 아래 연락처로 고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편집부: 02)886-2219 / 팩스: 02)886-2218
이메일: snua1969@naver.com



梁光姬회장 (좌로부터 세 번째)과 장학생들

梁光姬회장 유임·장학금 수여

간호대동창회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梁光姬)는 지난 4월 15일 모교 간호대학에서 梁光姬회장, 간호대학 金晟幸학장 등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여느 해와 달리 동문음악회로 출발하며 색다르게 진행됐다. 朱惠珠(간호73-77졸)동문의 맛깔스런 사회로 林英淑(간호66-70)동문의 독창, 金善姬(간호79-83)동문의 바이올린 독주, 尹桂淑(간호73-77)동문의

피아노 트리오, 75년 졸업 동문들의 중창 등이 이어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2부는 동창회 감사장·장학금 수여식, 신입회원 환영식으로 채워졌다. 지난해 수천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한 白月娘(간호59-63)·林英淑(간호66-70)·이선옥(간호69-73)동문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상장을 전달했다. 이날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미주에 거주하는 金賢姬(간호59-63)동문이 4월 14일자로 3천만원을 쾌척하며 모교와 동창회에 총 1억3천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장학금 수여식에서 이귀

향·崔愛玉(간호47-50)·金南連(간호53-56)·李正子(간호59-63)·姜信子(간호59-63)·金基珠(간호66-70)·金賢姬(간호59-63)·李倫京(간호65-69)·李愛珠(간호65-69)·申貞姬(간호75-79)·金英淑(간호75-79)동문, 57년 졸업 동기회, 84년 졸업 동기회가 출연한 기금으로 13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신입회원 환영식에는 총 76명의 졸업생 가운데 10여 명이 참석해 장미꽃과 함께 동문 선배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3부 총회에서는 문화행사, 흠커 밍데이, 재학생 지원, 회보발간 등의 사업에 책정한 4천6백여 만원의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어진 임원 개선에서 梁光姬회장을 재선임했다.

梁회장은 “많은 동문들께서 재능, 시간, 물질로 동창회에 참여해 주셔서 지난 2년 임기를 즐겁게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2년 역시 동문들의 힘을 받아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신입 회원들에게는 “동창회는 인생의 보람과 같다”며 “사회 생활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혼자 끄덕대지 말고 선배 또는 동창회를 찾아라”라고 조언했다.



좌로부터 올해의 토목인상 수상자인 金東洙·黃光雄동문, 鄭武鉉회장

2백여 동문 가족 모교 방문

토목공학과동창회

토목공학과동창회(회장 鄭武鉉)는 지난 4월 18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2백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봄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27·28·38회 동기회는 가장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끈끈한 동기애를 과시했다.

이날 鄭武鉉회장의 환영 인사에 이어 건화 黃光雄(토목공학59-63)회장과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金東洙(토목공학75-79)사장이 올해의 토목인상을 수상했다. 장

학금 수여식에서는 동창회 및 成百證장학회 이름으로 재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꽃포츠(양봉을 하는 한국의 플로츠)’ 성악가로 널리 알려진 金聖緣(성악81입)동문의 특별공연이 이어졌으며, 만찬 후에는 캠퍼스 꽃길을 가족 또는 동기회 단위로 걸으며 봄기운을 만끽했다.

동창회는 매년 신년회 겸 정기총회, 봄나들이 행사, 흠커밍데이 행사로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야구 단체 관람 행사는 토목공학과동창회만의 특별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金南柱기자)

丘在玉회장 선출 등 새 집행부 구성

생활대동창회

생활과학대학동창회(회장 崔明珍)는 지난 4월 11일 모교 관악캠퍼스 글로벌공학교육센터 라구정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입 회장에 한국방송통신대 丘在玉(가정교육68-72)회장(사진)을 선출하는 등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신임 丘회장은 최근 모교에 1억원을 기부한 모교 국어국문학과 丘仁煥(국어교육50-54)명예교수의 딸로,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대학원에서 식품영양학 석사학위, 모교에서 영양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감사에는 崔明珍(가정교육65-69)前회장과 朴明姬(가정교육67-71)동문, 상임부회장에는 玉先花(가정교육68-72)·方南順(가정관리70-74)·金貞姬(식품영양76졸)·趙珍淑(의류75졸)동문이 선임됐다. 교내총무는 陳美靜(가정관리87-91)동문, 교외총무는 千健熙(식품영양81-86)동문이 맡아 봉사하기로 했다.

劉京順동문은 생활대동창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지난 4년간 가정대학, 생활과학대학 후배들을 잘 이끌어준 崔明珍회장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특히 젊은 후배들과 화합의 길을 연 것은 큰 공적”이라고 말했다. 崔회장은 임기 동안 가정교육과, 가정관리/소비자아



동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등 4개 학과 동창회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젊은 동문

들의 참여를 크게 확대했다.

총회 후 목련회, 李義淑(가정교육56-60)·禹敬子(가정교육61-65)·崔明珍동문 명의로 4명의 학생에게 각 2백만원씩 8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모임에는 모교 생활과학대학 李順媛·李基春·李連淑·牟壽美·玉先花명예교수, 余禎星학장을 비롯해 2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팝페라 가수 박정소 씨의 공연 등을 즐기며 우의를 다졌다.

올해 첫 모임 가져 김포지부동창회

김포지부동창회(회장 金鍾逸)는 지난 3월 30일 김포 시내 한정식당에서 동문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첫 모임을 가졌다.

金鍾逸(법학52-56)회장은 이날 모임에서 동창회 회원들의 꾸준한 참여에 감사를 표하며 신년 초와 연말 모임 등 동문들이 모이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지부동창회는 3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P127

첫걸음

[First Step]

● 목적지를 향하여 차를 내리는 걸음 ● 어떤 일의 시작을 알리는 말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도전하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산업의 내일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미래인재를 키워내는
현대자동차그룹 연구장학생**

현대자동차그룹 연구장학생 11기 정양진 [25, 유승아 [22]
현대자동차그룹 연구장학생 제도는 매년 300여 명의 우수인재를 선발
전공별 특성화 교육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행으로 미래를 펼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자동차, 철강, 건설을 중심으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동행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HYUNDAI
MOTOR GROUP



뒷줄 좌로부터 金 洹·卞 鎔·俞 杰·元正洙·李商淳·尹承重·林忠伸·趙昌杰·公日坤·黃一仁·金錫澈등문

목구회 창립 50주년... 한국건축史 주역들 한 자리에

회원 중 趙昌杰 한샘 명예회장
‘한국판 부르킹스 연구소’ 건립에
4천4백억원 쾌척 화제 모으기도

“축복입니다.”

지난 4월 2일 서울 신라호텔 팔선에서 열린 木口會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에서 李商淳(건축52-56)동문 이 밝힌 소감이다.

모임의 좌장격인 李동문은 “목구회 탄생 반세기를 지내면서 느낌은 축복, 행운, 기쁨”이라면서 “일제 강점기를 직접 경험했던 우리 화우들은 해방이 되자 얼마 안 있어 6·25전쟁을 맞아 잣더미로 변한 폐허에서 새로운 멋진 공간을 만들어냈다”며 창립 50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모임에는 李商淳동문을 비롯해 元正洙(건축 53-57)·趙昌杰(건축59-63)동문 등 11명의 회원과 부인들이 참석했다.

목구회는 1960년대 건축계의 양대 산맥이던 ‘김수 근건축설계사무소’와 ‘무애건축’에서 근무하던 건축 학과 졸업생들이 건축정보의 교환을 위해 창립했다. 1965년 4월 1일 목요일 시작된 이래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목구회’란 이름은 첫 모임서 토론이 오래가자 公日坤(건축56-60)동문이 “먹고 합시다”라고 외친 것이 발단이 됐다. 목요일에 먹고 말하는 입(口)들의 모임이란 의미다.

목구회는 이름만 들어서는 단순 친목 모임 같지만 1970~80년대 한국 건축계를 선도하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작지만 묵직한 단체다. 한국건축 50년史를 정리한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安昌模(건축

81-85)교수는 “목구회 창립은 한국근현대건축사에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모임을 시점으로 건축을 고민하고 비평하는 단체들이 하나 둘 생겨났다. 홍익대 금우회, 한양대 한길회, 인하대 용마루회 등 대학을 중심으로 한 건축가 모임부터 80년대 이후 젊은건축가 모임인 4·3그룹의 태동에 이르기까지 건축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건축비평에 관심을 쏟으면서 왜색 논쟁이 일었던 부여박물관 사건, 공정치 못했던 정부종합청사 현상공모 문제제기 등을 통해 한국 건축계의 사회적 발언창자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회원으로 安瑛培(건축51-55)前도성건축 회장, 덕천건축연구소 李商淳회장, 간삼파트너스 元正洙상임고문, 鄭鎭城(건축53-58)前우일종합건축사 대표, 성균관대 趙大成(건축54-58)명예교수, 표준구조기술연구소 馬春景(건축54-58)소장, 향건축사 公日坤(건축56-60)소장, 창조건축사 金秉玄(건축56-60)대표, 원도시건축 尹承重(건축56-60)회장, 토팩엔지니어링 崔莊雲(건축57-61)고문, 협동건축사 金桓(건축57-65)소장, 林忠伸(건축58-63)前을산대 교수, 아이아크건축사 俞 杰(건축59-63)대표, 한샘 趙昌杰명예회장, 크레이디자인 金英哲(건축59-63)회장, 종합건축사 하나그룹 朴性圭(건축59-63)대표, 禹圭昇(건축59-63)동문, 일건건축사무소 黃一仁(건축59-63)회장,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金 洹(건축61-65)대표, 원도시건축 卞 鎔(건축61-66)대표, 종합건축사 아키반건축도시연구원 金錫澈(건축 62-66)대표 등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목구회 회원 가운데 ‘한국판 브루킹스 연구소’를 건립하기 위해 4천4백억원을 쾌척한 趙昌杰동문이 화제가 된 바 있다. 〈金南柱기자〉



1박2일 임원연수회로 화합 다져

AMPFRI동창회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李載坤)는 지난 3월 21~22일 양일간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임원연수회를 열었다.

1박 2일에 걸쳐 진행된 임원연수회에서는 차憲熙명예회장, 李載坤회장 등 50여 명의 임원진이 함

께 했으며 올해 사업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뤄졌다.

연수회 첫날 미술사 정윤호 씨가 ‘마술을 활용하는 리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으며 만찬과 친교 시간, 이튿날 골프 및 동문업소 탐방 순으로 진행됐다.

동창회는 6월 타이베이 식품박람회 참관을 비롯해 한마음체육대회(10월), 맛 기행(11월) 등의 친목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정기총회서 朴浩永회장 재추대

HPM동창회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동창회(회장 朴浩永)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朴浩永회장, 모교 보건대학원 趙炳熙원장, 보건대학원 동창회 裴古漢회장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전년도 결산보고와 2015년도 사업계획이 승인됐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朴浩永회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감사에는 韓榮(치의학79-85·4기)·金道淵(13기)동문이 선임됐다.

만찬 후 이어진 3부 순서에서 1984년 LA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김원기 씨가 ‘나는 나를 넘어서다’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학술세미나에 2백여 동문 참석

AIP동창회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李景載)는 지난 4월 8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金榮洙·姜錫大·鄭喜鎔·姜普英전임 회장, 李景載회장, 본회 鄭八道부회장, 모교 공과대학 李建雨학장, 成宇濟 과정주임교수 등 2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朴世逸(법학 66-70)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이 “왜 통일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어서 모교 공대의 산학협력중점조직인 SNU공학컨설팅센터

자랑스러운 교수상 시상 AMP동창회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金鐘燮)는 지난 4월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孫京植명예회장, 金鐘燮회장을 비롯해 모교 경영대학 南益鉉학장 등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AMP 자랑스러운 교수상 시상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모교 경영대학 金載一(경영72-76)교수가 수상영광을 안았다.

〈邊廷洙기자〉

동문 작품

지상 전시회



품평품사 : 순정녀, 한지 위에 수묵담채, 112×134cm, 콜라주, 2014년

金炫廷 作

〈작가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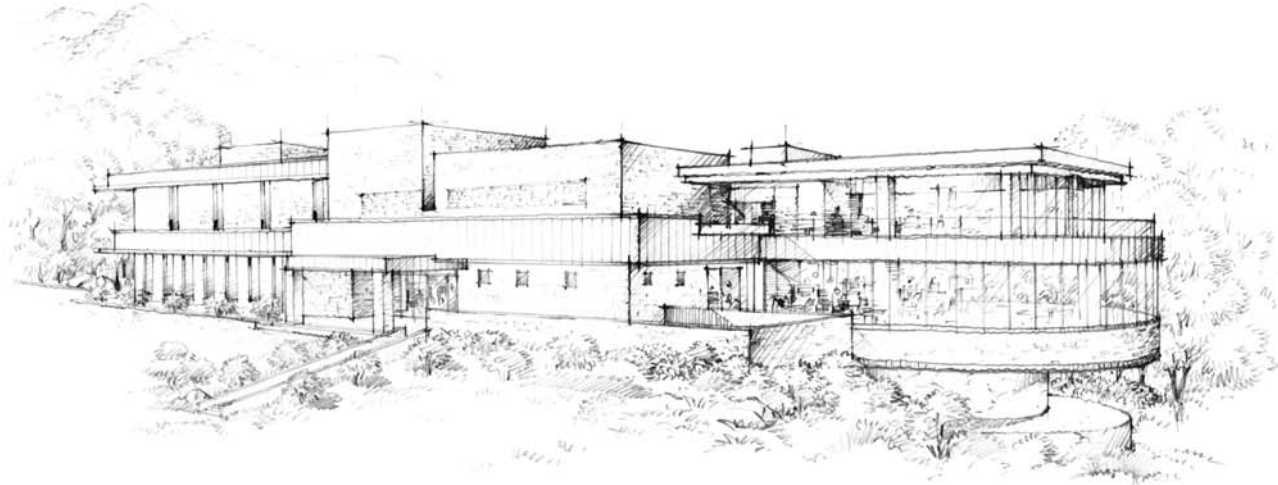
- ▲2012 모교 동양화과 졸업
- ▲2015 모교 동양화과 석사 졸업
- ▲2011 서울대총동창회장상
- ▲2014 제34회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 주목할 예술가상, 동아일보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 선정
- ▲내송올림픽, ‘내송, 겨울이야기’ 등 개인전 다수
- ▲싱가포르, 독일, 홍콩, 미국 등 다수의 해외 아트 페어 참가
- ▲교보라이프플라넷, LG생활건강 등 Artist collaboration
- ▲現 조선일보 프리미어·김현정의 그림라디오 연재 중

※ 작가 한마디 : “그림이 일상생활에서 소통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마치 음악처럼 미술도 생활의 일부로서, 생활의 저변에서 누구나 쉽게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www.facultyclub.snu.ac.kr

2015.05.18(월)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리뉴얼 오픈



서울대학교의 역사와 함께 해 온 **교수회관**이 품격과 위상에 걸맞는 학문과 소통, 휴식이 가능한 최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5월 18일 오픈** 합니다.

세미나룸

1층		
세미나실명	사용용도	수용인원 및 면적
회의실 2,6	소회의실 (식사,세미나)	8인 28.5㎡ (8.6py)
회의실 1,7	소회의실 (식사,세미나)	10인 34.5㎡ (10.4py)
회의실 3,5	중회의실 (식사,세미나)	14인 52㎡ (15.7 py)
회의실 4	대회의실 (세미나)	42인 109㎡ (33py)
회의실 9	대회의실 (식사,세미나)	80인 121㎡ (36.6py)
Faculty Dining (1층 레스토랑)	피로연장 (식사,연회)	210인 346㎡ (105py)
2층		
세미나실명	사용용도	수용인원 및 면적
컨벤션홀	대회의실 (세미나)	280인 447㎡ (135.2py)
Faculty Club (2층 레스토랑)	피로연장 (식사,연회)	80인 213㎡ (64.4py)

웨딩

구 성	내 용
웨딩홀	300석 컨벤션홀
혼구용품	방명록, 성혼선언문, 혼인서약서, 장갑, 봉투, 사인펜, 케일커팅 서비스
본식사진	원판 12p 앨범 3권 허그스튜디오 (www.hugstudio.com)
페백실 사용	페백의상, 교장상, 돗자리등, 페백수로 포함
플라워 데코	단상, 무대장식, 센터피스, 꽃길, 신부대기실

연회

구 분		내 용	가 격	비 고
주 중 평 일 오후	세미나 식사	단품메뉴 (레스토랑)	13,500 ~ 24,500	
		Lunch Special Set	25,000	
		느티나무 코스	40,000	2일전 예약주문에 한해 可
	연 회 및 행 사	한정식	40,000	2일전 예약주문에 한해 可
		백학 코스	50,000	7일전 예약주문에 한해 可
		뷔페	A - 42,000 B - 48,000	최소인원 100명 이상
	다 과	다과세트	8,000 ~ 10,000	
	레스토랑	단품메뉴	일 품 (한식/웨스턴)	13,500 ~ 24,500
		Lunch Special Set	25,000	
		느티나무 코스	40,000	2일전 예약주문에 한해 可
		코스메뉴	백학 코스	40,000 7일전 예약주문에 한해 可
		한우 안심 코스	50,000	7일전 예약주문에 한해 可
		한우 꽃등심 코스	60,000	7일전 예약주문에 한해 可
휴 일 오후	웨 딩	웨딩메뉴	얼교자 상차림	50,000
		진찬 상차림	55,000	최소인원 250명 이상 음주류 포함
		진연 상차림	65,000	

| 세미나문의 : T.02-871-3292~5
F.02-871-3296

| 웨딩문의 : 02-3285-2115~6

| 주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서울대학교) 교수회관 (65동)



행복한 일상을 위한 라이프네트워크, BGF가 맞추어가다

유통과 물류, 옴니채널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일상의 편리함을 삶의 행복으로 연결해주는
라이프 네트워크 기업, BGF
대한민국의 생활을 하나로 이어갑니다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IFP동창회 權棋大회장

(로터스사이언스 대표)

미래지도자 인문학과정(IFP)동창회는 지난해 연말 총회에서 로터스사이언스 權棋大(7기)대표를 5대 동창회장으로 추대했다. 신임 權회장은 동창회보와의 인터뷰에서 “증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임기 동안 낮은 자세로 임하는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 취임 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정양의 해가 벌써 중반에 다다르고 있네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창회 업무를 병행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 동창회 소개를.



로부터 매월 인문학 도서를 추천 받아 토론회를 열고 있으며, 2개월에 한 번 씩 사회 저명인사들을 초청해 심화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4전 5기의 복싱 세계 챔피언 홍수환 한국 권투위원회 회장을 초청해 성황리에 마치기도 했습니다. 오는 5월 29일에는

“5월 29일 중국 역사문화탐방 계획”

“현재 4백여 명의 동문이 있으며, 13기 원우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崔熒埤(7기)사무총장, 許允禎(7기)재무총장이 저와 함께 동창회 심부름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창회에는 다양한 분야에 몸담은 동문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장점으로 활용한 자문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소속돼있는 자문위원회 제도는 광고홍보, 유학상담, 세무회계, 의료정보, 법률정보, 입시정보 분야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동문 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좋은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만의 장점으로 활성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부하는 동창회로 알려졌는데.

“수료 후에도 동문들에게 지속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임교수를 맡고 계신 張在盛인문대학장님의

張辰城교수님과 함께 중국 상해·주장·소주로 해외 역사문화탐방을 가려고 합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인문학은 사람과 삶에 대한 사랑의 하모니라고 합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학문인 인문학의 근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증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지만 임기 동안 낮은 자세로 임하는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權회장은 화학·화공약품, 귀금속 수출입과 특수건설업을 하는 로터스사이언스를 이끌고 있으며 최근 중국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개인 음악실을 갖추고 색소폰, 통기타, 드럼, 피아노 등을 연주할 정도로 음악에 조예가 깊다. ‘텀텀 하모니’라는 음악동아리에 속해 매년 30회 정도의 공연을 펼치고 있다.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BCP동창회 黃海領회장

(루트로닉 대표)



－ 앞으로 계획은.

“무엇보다도 동문간의 교류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조속한 시일 내에 새 입학 기수(13기)에는 다양한 직업군, CEO 및 전문직 종사자가 입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졸업 동문이 2백80여 명으로 회원 수가 많은 모임은 아니지만, 내실 있고 보람된 조직으로 이끌어 나가려 합니다. 학술대회, 장학사업, 사회봉사사업, 골프·등산대회 등의 정기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좀 더 일찍 동문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했으나 사업의 분주함이란 이유

“새 입학 기수 다양한 직업군 유도”

－ 1년여 간 회장직이 공석이었는데.

“2013년 내부 조직이 바뀌면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朴在植(10기)사무총장께서 대내외적으로 조화롭게 꾸려주신 덕분에 오늘날까지 잘 이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시기에 동창회장을 맡게 돼 책임감이 무겁습니다만 동문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참여해줄 것을 약속해 주셨기에 걱정보다는 기대가 큼니다.”

－ 동창회 장점이 있다면.

“바이오산업이라는 특정 산업군에 대한 최신동향을 파악하고, 경영 전략에 대한 넓은 시야와 국제경쟁력을 쌓아나가기에 좋은 모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동문기업 간 인적·기술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적으로도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로 인사가 늦어 송구스럽습니다. 동문들 모두 각 자의 삶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아낌없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고, 한 걸음 나아가 동문님들의 다양한 사향을 수렴하고 연구해 더 진보된 동창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黃회장은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현재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이사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7년 설립한 레이저 의료기기 제조업체 루트로닉은 현재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히든챔피언에도 선정된 바 있다. 본사 임직원의 30%가 연구개발 인력으로 연구개발 중심회사이다. (邊廷洙기자)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솔로가 두오가 되는 곳

결혼해 두오

두오

한국대표
결혼정보회사·두오
1577-8333

성혼커플수 30,980명 | 20년 역사와 규모, 매출 1위

(2015년 4월 28일 기준) (2014년 매출액 기준)
*두오는 일제 유학의 '외국인 대상'인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연령으로, 교육청등록 전지공사(신선)를 통해 매월 교육청 모집 모은 재학생들을 공개하는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입니다.
*성혼커플수는 두오에 가입한 남녀 1쌍을 2인 1석 성혼수입으로 1995.2.14~2015.4.20

SNUH 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EALTHCARE SYSTEM GANGNAM CENTER

“차별화된 개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시스템 강남센터에서 경험하세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38~40층 | T : 02-2112-5500 | F : 02-2112-5554 | <http://healthcare.snuh.org>



VISION 21C

세상을 떠받치는 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기업
건설의 기초를 다지는 기업

CHUNMA CONCRETE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09 천마빌딩 TEL. 02. 2202. 7761

화제의 동문

모교 약학대학 李奉振학장



지난해 7월 모교 관악캠퍼스에 약학대학 동문들의 자부심이 우뚝 섰다. 신약개발센터가 바로 그곳. 센터 건립 기금 1백75억 원 중 국고 보조금을 제외한 50억원을 동문 기부금으로 마련했다. 진양제약, 신풍제약, 하나제약 등 약대 출신 동문이 이끄는 국내 우수 제약기업과 코스맥스 등의 기업도 거액을 쾌척했다. 내부 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금 또한 줄을 이었다.

이처럼 많은 동문들의 중지가 모이니까 약학대학 李奉振(약학77-81)학장의 역할이 컸다. 한때 신약센터는 재원 부족으로 건립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궁여지책으로 ‘원로 교수들이 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건축비를 마련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랬던 약대에 지난 2년 동안 총 1백20억원에 달하는 발전기금이 모였다. 지난 4월 24일 관악캠퍼스 약학대학 학장실에서 李동문을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교수진 기부 앞장서자 동문 따라와

기부의 스타트를 끊은 것은 李동문을 비롯한 학장단과 약대 재직 교수들이었다. 그러자 ‘현직 교수들이 십시일반하는데 우리도 힘을 보태야겠다’며 명예교수들도 기부에 나섰다. 이렇게 쌓인 기부 선례를 가지

고 동창회와 제약회사의 문을 두드렸다. “서울대 신약개발센터에서 제대로 연구해야 국내에서도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올 수 있다”고 설득해 기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 예로 미국 조지아대 朱重光(약학64졸)석좌교수님이 개발한 C형간염 치료제가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업체를 통해 출시됐는데 알약 하나에 1백만원씩 해요. 비싸지만 간 이식에 비하면 적은 비용으로 치료할 수 있는 대안이죠. 과거 자동차, 반도체가 그랬듯이 이제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드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모교의 신약 개발 연구도 점차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십시오.”

李동문은 “새로운 기부자를 유치하는 일 만큼 기존 기부자들을 예우하고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3회 전 동문에게 메일로 발송되는 뉴스레터는 ‘한 번에 한 명의 기부자만 집중 소개한다’, ‘중복되는 느낌이 없도록 격일로 발송한다’는 원칙 하에 기부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레터를 읽은 동문들이 “내 동기가 낸 만큼 나도 내겠다”, “기부자를 추천해주겠다”고 나서기도 한다. 한 번 기부했던 동문의 추가 기부도 늘었다.

“홍보의 중요성은 본부에서 연구부처장

약대 1백20억원 발전기금 유치·신약센터 건립 “모교서 ‘블록버스터 신약’ 탄생 기대해주세요”

으로 일할 때 느꼈어요. 언론에 홍보가 돼야 서울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국민들에게 평가도 받을 수 있더군요. 그래서 학장이 되자마자 시작한 게 ‘약대 홍보 프로젝트’예요. 우리 대학의 연구 역량엔 자신이 있었기에 세계적인 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서 전 세계 약대 중 서울대 약대가 교수 1인당 논문 편수 1위, 인용수 3위로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 내용이 일간지에 크게 보도되고 전화기에 불이 났어요. ‘눈물 날 정도로 기쁘다’, ‘자랑스럽다’는 동문들 반응에 뿌듯했죠.”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 모교 약대는 1915년 조선약학강습소로부터 시작하는 뿌리찾기 사업이 한창이다. 李동문은 “역사

자료 수집 중인데 작고하신 동문의 자녀분께도 연락을 드리고 전국 어디든 직접 찾아 뵙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소중한 유품도 기꺼이 기증해주셨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은 오는 6월 모교 약학대학(21동)에 개관하는 가산 약학역사관을 통해 선보인다. 서울 을지로의 옛 조선약학교 자리에 교적비와 간이 역사박물관도 만들 계획이다. 심도깊은 연구를 위해 약대 沈昌求 명예교수를 필두로 약학사학회를 꾸릴 만큼 열성이다.

약대 100주년 기념 약학박물관 개관

약대에는 앞으로도 많은 속제가 남아있다. 속원이었던 신약센터를 건립했지만 내부에는 50억 규모의 실험동물실 구축이 아직 한창이다. 실험동물실은 모교의 여러 연구 분야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제대로 지으려면 1백억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1975년 지어진 현재 약학대학 건물 두 동의 리모델링도 시급하다.

후원자 유치를 위해 바쁘게 주장을 보낸 李동문은 주말에 연구실을 찾아 학생들을 지도하고 명예교수들과 테니스를 함께 치며 고견을 구한다. 이런 그의 열정이 동문들의 단합을 이끌어낸 비결이 아닐까.

“‘서울대생들은 애교심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동문들이 가슴 속에 있는 애교심을 어떻게든 꺼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접촉하고 계기를 만들려는 노력입니다. 앞으로도 약대 발전과 동문들의 화합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朴秀璿기자)

벤처기업협회 鄭峻 회장

“이제는 많은 인재들을 유인할 수 있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훌륭한 벤처기업들이 탄생하고 그중 다수가 대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바람직한 창업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성남 판교 솔리드 사옥에서 만난 벤처기업협회 鄭峻(전자공학82-86)회장의 일성이다. 鄭회장은 지난 2월 제11대 벤처기업협회장으로 선출됐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들 사이에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자는 목표로 1995년 설립된 단체다. 모교 졸업 후 스탠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鄭회장은 KT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솔리드’를 창업해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창업, 실패 비용 줄이고 보상 늘려야

鄭회장은 요즘 청년들의 직업 선호도를 언급하며 벤처 생태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벤처 생태계가 성장하기 위해선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유입돼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인센티브를 필연적으로 늘려야한다는 것.

“벤처 도전에 대한 사회·경제적 인센티브 시스템이 아직 미흡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일에 도전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벤처 도전에 대한 사회·경제적 인센티브를 충분히 늘리는 일도 저희의 핵심 과제입니다. 도전에 대한 실패 비용을 줄여주고 성공에 대한 보상을 늘려주는 환경을 빨리 만드는 것이 협회의 미션이죠.”

더 나아가 젊은이들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우리 시대의 평균 수명은 1백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구하고 있는 안정적인 직장도 앞으로 그럴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자신이 경쟁력 있는 분야를 찾고 꾸준히 창조적인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벤처 창업 도전도 그 일환으로

“연매출 1조 ‘벤처’ 수백개 나오도록 생태계 조성” KT연구원 시절 ‘솔리드’ 창업, 중견업체로 견인

볼 수 있습니다.”

鄭동문은 사회적으로 경제 성장의 히든 챔피언 역할을 벤처기업이 하게 되리라는 기대가 뜨거운 것이 현실이지만 벤처기업들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선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 시점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목적은 과거의 추격형 경제(fast follower)에서 선도형 경제(first mover)로 변신하기 위함입니다. 벤처기업 육성이 한국 기업들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경제 성장의 새로운 물꼬를 벤처기업에서 찾자는



것이다.

오래 국민들은 한국에서도 제2의 구글, 아마존 같은 세계적 벤처기업이 나오길 기대한다. 鄭회장은 “글로벌화는 한국 벤처기업의 큰 숙제 중 하나”라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세계적 시각을 배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기업의 시작부터 글로벌한 환경을 고려하고 그에 맞는 전략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중국의 창업 돌풍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다. “주변국인 중국에 큰 영향을

받겠지만,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두기보다 글로벌 시장 전체를 모두 고려하면서 기업 활동을 해나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벤처협회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을까? 벤처협회는 48개국 80여 개의 지부를 두고 있는 세계 한인 벤처네트워크(INKE)를 중심으로 해외진출 구상을 설명했다.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벤처기업들의 글로벌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벤처기업 3만개…1천억 매출 업체 ↑

지난 1월 기준 우리나라에는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수가 3만개를 넘어섰다. 그중 연간 매출 1천억 이상을 달성하는 벤처기업수도 5년간 10% 선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벤처기업들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鄭회장의 목표는 단호하다.

“멀지 않은 미래에 1천억 벤처가 아닌, 1조 벤처가 수백 개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벤처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벤처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분배,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그 목표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方峻輝회장기자)

화제의 동문



2015 과산
세계 유기농 산업엑스포

2015.9.18 ~ 10.11 (24일간)
충북 괴산군 유기농엑스포농원

충청북도 괴산군 ISOFAR

POSCO FAMILY

Global Multiplayer

Challenging towards
Global Top Company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 소중한 자산으로 여겨야”

동문록 찾아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玄敬大수석부의장

좀처럼 언론 인터뷰에 나서지 않는 玄敬大(행정60-6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지난 4월 27일 서울 장충동 민주평통 집무실에서 만났다. 동창회보 일행이 도착했을 때 대기실은 그를 만나고자 하는 방문객들로 북볐다. 손님

들과 대화가 이어지면서 피곤할 법도 한데 목소리는 힘이 넘쳤고 논리 정연했다. 수십 년 전 일을 낱자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모습엔 감탄이 나올 정도다. 분단 70주년을 맞아 최고의 통일 전문가로 꼽히는 그의 ‘한반도 통일비전’을 들어봤다.



대담 : 許英燮(이데일리 논설위원실장)논설위원

– 바람이 시원하고 좋네요. 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남산의 기를 제대로 받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 자신과도 기운이 잘 맞는 것 같고요. (웃음)”

– 1990년 민주평통 사무총장을 역임하시고 다시 수석부의장으로 오셨습니다. 민주평통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살다보면 이런 것도 운명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사실 1990년에 민주평통 사무총장으로 올 때는 제 의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또 25년 만에 같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제가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에 쏟아부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큰 영광이라는 생각과 함께 대한민국이 저에게 준 마지막 사명이라 여기고 최선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 지난 2년간 활동을 돌아본다면.

“16기 민주평통이 국내외에서 진행한 통일 사업은 책 몇 권으로 묶어내도 부족할 정도로 방대하고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포함해 16기 자문위원들은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의료, 법률, 취업, 장학, 1:1 멘토링 서비스를 진행하는 ‘하나-다섯’ 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북한 주민의 1천분의 1이 넘는 2만7천 명 이상의 탈북자가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숫자입니다.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게 ‘이분들은 먼저 온 통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호하고 도와준다는 차원을 넘어 통일 준비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분들과의 교류가 통일 이후 2천5백만 북한 주민들을 우리 체제에 적응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탈북민들이 통일이 됐을 때 자기 고향으로 갈 텐데, 그 곳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온 통일’, ‘통일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 분단 70년을 맞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일 국립 현충원을 방문해 ‘광복 70년 그러나 분단 70년, 통일로 진정한 광복을 이루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됐는데 기쁨보다 아픔이 큰 것은 여전히 분단 극복이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70년이지 실제 강점 36년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얼마 있으면 한 세기를



“북한 인권 회복이 평화통일 첫 걸음”

작은 키에 추진력 강해 ‘현플레이웅’ 별명

넘기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고비에서 우리 자신을 추스르고, 통일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대흐름을 제대로 읽고 있지 않나 싶어요. 취임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국정기조에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자기네 관련 내용이 들어가도록 로비를 상당히 치열하게 합니다. 그런데 통일은 중요하면서도 뒤처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대통령 자신이 취임 준비 과정에서부터 분단 70년을 맞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민족적 과제는 통일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정기조의 하나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4대 국정기조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인데, 네 번째만 8자입니다. 그때도 일부 균형이 안 맞다는 말이 있었지만, 대통령께서 뜻한 바가 있어 밀고 나간 거죠.”

– 북한 인권문제에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 玄수석부의장은

제주 출신으로 오현고를 나와 모교 법대에 입학했다. 사시(5회)에 합격한 뒤 대전지검·서울지검 특수부와 민주평통 사무총장을 거쳐 11, 12, 14, 15, 16대 국회의원,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했다.

제주 4·3항쟁 와중에 부모를 여윈 4.3 유족이기도 하며 ‘근로기준법’, ‘新협법’ 등 법률 관련 저서를 펴낸바 있다. 작은 키에 추진력이 강해 ‘현플레이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본회 부회장으로도 봉사하고 있다.

“작년 2월 19일 중앙아프리카의 인구 2백만인 보츠와나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실태를 담은 COI의 유엔 북한 인권보고서가 발표되자 ‘도대체 아프리카 난민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유 없이 굶주리며 살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 북한 정권에게 인권 유린을 당하는 주민을 진심으로 동정한다. 이러한 나라와 국교를 유지할 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국교를 단절해버렸습니다. 팽팽어리는 우리보다 5배 크지만 인구는 2백만에 불과한 아프리카의 나라로부터 국교를 단절당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 상징적인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북한이 저렇게 못

권이 무너지고 주민들에게 모든 자유가 보장된 가운데 스스로 투표를 통해 정부를 만든다고 할 때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하게 되겠죠. 북한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정부라면 우리랑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 인권 회복에 전념하는 이유는 평화통일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 김정은 집권 3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지금까지는 큰 소요사태는 없습니다만, 김정은의 리더십이 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불안 요소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는 핵-경제 병진노선이라는, 사실 절대 조화될 수 없는 자기 분열적 국정노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2인자이자 정치적 멘토인 고모부 장성택을 잔혹한 방법으로 처형하고 측근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는 공포정치를 일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안정화에 기여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운영 능력 손실이라는 큰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서른살 남짓의 젊은 지도자가 군 최고 수뇌부의 계급장(예: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수차례 뺐다 붙이기를 반복하고, 군 장성들의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사격훈련과 행군, 수영을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마치 군대를 쥐고 흔드는 느낌을 갖는지 몰라도 군 장성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감과 불만을 키우게 됩니다. 통치력 부족이 가져올 내부 반발이 계속 누적되고 집단화된다면 권력은 크게 불안해질 것입니다.”

– 원론적인 질문입니다만, 통일 어떻게 하면 앞당길 수 있을까요.

“강력한 의지와 국민적 합의, 소망, 자신감이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통일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통일은 이룰 수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진·정리= 金南柱기자)

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똑똑하고 부지런해서? 북한 사람이 덜 똑똑한가요? 천만의 말씀. 분단 당시는 북한이 공업도 발달하고 더 나았습니다. 순전히 체제의 차이, 제도의 차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주민 자신들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걸 생각하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이 북한에 터를 잡았다면 내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전쟁 때도 아니고 평시에 수백만이 굶어 죽는 정권이 쉽게 용납될 수 있는 정권인가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면 이상한 거죠.

통일 추진에 있어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 회복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보듯이 동독 주민들의 인권 회복을 통해서, 다시 말해 1989년 평화혁명을 통해서 공산정권이 붕괴되고 동독 주민들 스스로 선거를 통해 만든 정부가 3백20일(1990년 10월 3일) 만에 통일을 이뤄냈거든요. 북한도 3대 세습 정



결혼! 참 잘했다

대명그룹 30여년 고객서비스 역량 구축
대한민국 레저 No.1 대명리조트의 회원관리 역량 기반
국내 유일 대기업 브랜드/서비스 품질보증

결혼정보 20여년 매칭시스템 운용
대한민국 대표 성혼의 달인/중매 특허 보유
2:1 맞춤형 밀착서비스

웨딩컨설팅 10여년 웨딩컨설팅 설계
셀프웨딩부터 동행서비스까지 맞춤형 상품
대기업 계열사/제휴 인프라 연계 상품

대한민국 대표리조트기업 대명그룹 계열사

대명위드원

결혼정보 & 웨딩컨설팅

결혼정보 1588-3883
웨딩컨설팅 02)2017-7500



대명위드원 컨설턴트
박명학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서울-서초-국내-08-0013

대명레저산업(2014 현재 대명리조트 국내 리조트 1위, 오션월드 세계 워터파크 4위) 대명홀딩스 | 대명건설 | 대명엔터프라이즈 | 대명코퍼레이션 | 대명라이프웨이 | 대명복지재단



대한민국은 에너지 충전 중

한국수력원자력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수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물론 수력·양수 및 신재생 에너지까지
언제나 든든하게 충전해 주니까

대한민국, 오늘도 힘차게 움직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리더



■ khnp.co.kr ■ facebook.com/ilovekhnp ■ blog.khnp.co.kr

안전 생활 속 안전 위협요소! 안전신문고 로 신고해주세요
앱(안드로이드/iOS 모두 가능)과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Sunny International Inc.

201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상 녹색기술부문 품질혁신기업 대상

캐나다의 Canpotex Limited, 미국의 The Mosaic과 Agrium Inc.
독점 대리점으로 비료와 비료원료를 국내외 시장에 공급



MOP



Sul-po-Mag



Urea





(주)신태양물산 회장 **박명학**
(영어과 61)

www.suny-intl.co.kr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08 랜드마크타워 Tel.02.555.0062 Fax.02.555.0063

선한 인재들을 후원해주세요 다양한 잠재력을 지닌

선한 인재 장학금이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며 꿈을 위해
노력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이렇게 쓰입니다

가계소득 1분위 이하*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인당 매월 생활비 30만 원 지원

* 가계소득 1분위: 월 소득인정액 108만 원 이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이만큼 필요합니다

매년 27억 원(학기당 750명)

360만 원이 모이면 한 명의 학생에게
1년의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900억 원이 모이면 기금 운용수익을 통해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약정 참여

02-880-8004, 02-871-8146 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ARS 후원

060-700-8004 한 통화에 5,000원이 기부됩니다.

* 유증 및 부동산 등 기타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은 세액공제, 법인은 연간 이익금액의 50% 내에서 손금 처리 가능)



서울대학교발전기금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940동) 2층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전화 02-880-8004 팩스 02-872-4149 이메일 snuf@snu.ac.kr 홈페이지 www.snu.or.kr

SNUON에 신규 동영상 강의 공개

본회 14억원 지원 총 53개 강좌 개발

모교 소식

모교(총장 成樂寅)는 지난 3월 30일 모교 열린교육 홈페이지 SNUON을 통해 18개의 신규 동영상 강의를 공개했다.

‘열린 강좌’ 3기로 공개된 이번 동영상 강의는 본회 장학연구지원 사업에서 진행하는 교수 강의 동영상 강좌 사업을 통해 개발했다. 현재 진행 중인 3차년도 사업은 본회에서 모교에 5억2천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2014학년도 2학기과 2015학년도 1학기에 걸쳐 총 31개 동영상 강좌를 개발한다. 이

번에 공개한 18개 강좌는 2014학년도 2학기 정규 수업과 겨울방학 동안 촬영을 완료한 강의들이며, 현재 촬영 중인 1학기 수업들은 올해 하반기에 공개된다.

이로써 1기 동영상 강좌 제작부터 본회에서 지원한 총 금액은 14억5천만원이며, 동영상 강좌 수는 53개에 이르게 됐다.

18개 강좌 목록에는 화학과 생물 분야의 필수 기초과목을 비롯해 ‘생활 속의 생태학’(李道元교수), 우주와 생명의 진화를 다루는 ‘자연과학의 세계’(金熙濬교수) 등 일반 대중도 이해하기 쉬운 자연과학 분야 강의들이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공개된 ‘경제원

론1’에 이어 미시경제학의 대가인 경제학부 李俊求명예교수의 ‘경제원론2’ 강의도 들을 수 있다. ‘말과 마음’(인문대 이성은 교수) 등의 인문학 강좌를 비롯해 ‘음악의 원리’(음대 全商直교수), 수목화 등 동양화 기초 실습 강의인 ‘평면조형’(미대 申夏淳교수)과 같은 예술 분야 강좌 또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내 구성원의 경우 모교 SNUON(http://snuon.snu.ac.kr) 홈페이지에서, 일반인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SNUON’ 앱을 내려받거나 모교 평생교육원 SNUi(http://snui.snu.ac.kr) 홈페이지(5월 중 공개 예정)를 통해 수

〈교수 강의 동영상 신규 18개 강좌〉

교 수	강 좌 명	교 수	강 좌 명
이성은	말과 마음	대학영어 프로그램	College English Program Online Writing Tutorial
李俊求	경제원론2	金熙濬	자연과학의 세계
李日河	인문사회계를 위한 생물학	조대식	생물학2
설지웅	화학	김영득	수학 및 연습2
李相求	데이터베이스	洪誠弼	경영과학1
金賢哲	실내설계	沈亨輔	공학수학1
金東奎	교통시스템설계	申夏淳	평면조형
林哲一	교육공학	羅駟柱	교수이론
全商直	음악의 원리	李道元	생활 속의 생태학

강 가능하다.

모교 ‘열린 강좌’는 교육의 질 제고와 대학의 지식 나눔을 목표로 본회의 지원 하에 2013년 9월 첫 서비스를 시작했다. 1기에는 ‘물리의 기본’(崔善浩교수), ‘현대철학사조’(朴贊國교수) 등 13개 강의가 개설돼 현재까지 재학생과

일반인 등 약 4천명이 수강했으며, 2014년 3월 공개한 2기에는 ‘경제통계학’(柳根寬교수), ‘기독교개론’(裴哲炫교수) 등 9개 강의가 개설돼 3천 2백여 명이 수강했다. ‘SNUON’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도 9만여 건을 넘어서며 꾸준히 호응을 얻고 있다. (朴秀璿기자)

스코필드 박사 서거 45주기

애제자 崔振玲동문 추모 특강

모교는 지난 4월 10일 관악캠퍼스 수의과대학 스코필드홀에서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 서거 45주기를 맞아 제13회 스코필드 박사 추모기념식을 열었다.

모교와 호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회장 鄭雲燦)가 함께 주최한 이날 행사는 국립서울현충원 스코필드 박사 묘역 참배로 시작했다. 추모기념식에서는 鄭雲燦회장이 관악구 중학생 2명과 모교 수의학과 재학생 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어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崔振玲(영문55-59)명예교수가 추모 특강을 했다.

모교 재학 시절 통역과 비서로 가까이서 스코필드 박사를 도왔던

崔동문은 “박사님의 일상에서 첫째는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 세계 각처로 후원을 요청하는 서신을 하루에 수십 통씩 쓰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또 50여 년 동안 간직해온 스코필드 박사의 편지와 글들을 통해 고인의 유훈을 전하며 감동을 더했다.

스코필드(한국명 石虎弼)박사는 3·1 독립운동의 34번째 민족대표로서 1958년 모교 수의과대학에 부임해 별세하기까지 한국의 고아와 어려운 학생을 돌보는 데 여생을 바쳤다.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됐으며,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을 받았다.

57대 총학생회 회장에 자연대 주무열 군 선출



모교 총학생회 제57대 회장에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주무열(물리천문04입)군(사진), 부회장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김보미(소비자아동12입)양이 선출됐다.

총학생회 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과 13~15일 연장투표를 실시한 결과 ‘디테일’ 선거운동본부의 주무열·김보미 후보가 최종투표율 51.9%, 득표율 50.9%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투표를 과반을 넘기지 못하고 무산된 총학생회 선거는 지난 4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한 재선거에서 투표율 42.5%를 기록, 연장투표에서 투표율 50%를 넘기며 성사됐다.

중앙도서관장에 洪性傑교수 임명



신임 洪관장은 모교 건축학과 졸업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리하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우람구조 구조설계 부소장을 지내고 1996년부터 모교에 부임해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한국지진공학회 회장, 한국 콘크리트학회 부회장, 대한건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金相熙교수 신풍호월학술상 수상

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徐廷和)가 후원하고 신풍호월학술회(이사장 張龍鐸)와 모교 약학대학(학장 李奉振)이 공동 주관한 신풍호월학술상 신약연구개발부문 시상식이 지난 4월 10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제4회 신풍호월학술상 신약연구개발부문 수상자로 모교 제약학과 金相熙(제약84-88)교수가 선정돼 상패와 상금 3천만원을 받았다.

金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천연물 전합성과 신약후보물질 도출이다. 미지의 생명현상을 규명하고 조절할 수 있는 신약개발을 위해 Reverse Lipidomics라는 개념을 도입, 생물학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생명현상을 화학적 가설과 기법으로 극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국내 의약화학의 선도적인 연구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모교 柳根培기획부총장, 약대 李相燮명예교수, 李奉振학장, 본회 朴承熙사무총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金교수의 수



張龍鐸이사장, 金相熙교수

상을 축하했다.

張龍鐸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최고의 학문적 연구성과로 주목받는 서울약대의 우수한 인력들과 최첨단의 연구시설을 갖춘 서울대신약개발센터의 탁월한 연구력이 산업계와 결합하면 ‘혁신신약’은 물론 글로벌 ‘개량신약’까지 창출해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 동안 축적해 온 우수한 논문과 연구 성과물이 제약업계와 연계돼 실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가산업 경쟁력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0돌 행사…동창회 활성화 제안

사회과학대학

모교 사회과학대학(학장 朴贊郁)은 지난 4월 24일 사회과학대학 설립 40주년을 맞아 관악캠퍼스 아시아연구소와 문화관 중강당 등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다.

이날 아시아연구소에서는 ‘사회과학대학의 발전취와 발전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사회복지학과 曹興植(사회사업72-76)교수, 李奉柱(사회복지81-85)교수, 정치외교학부 趙東濟(외교87-91)부교수가 사회과학대학의 역사와 발전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사회과학대학의 공

통 정체성 형성을 위해 공통 교과목을 개발하고, 학부 교육이 한국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 주요 문제에 대한 Capstone Project 교육 과정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각 학과(부) 단위를 아우르는 사회대 전체 동문들의 화합과 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해 사회대 동창회를 활성화하고 연말 행사 및 홈커밍 행사를 진행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사회과학대학은 모교 단과대 중 최저 수준인 약 7억원 규모(2010년 기준)의 발전기금을 보유하고 있어 재원 마련을 위한 발전기금위원회의 활동도 절실한 상황이다.

네팔에 1억원 상당 의약품 지원

모교 병원

모교 병원(병원장 吳秉熙)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에 1억원 상당의 긴급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를 보내기로 하는 등 네팔 피해 구호에 적극 나섰다.

모교 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네팔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항생제, 외상치료제 등을 비롯한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를 5월 1일 카트만두대학병원에 보낸다고 밝혔다.

모교 병원은 4월 28일 카트만두대학병원 의사로부터 의약품 등이 곧 바닥날 것이라는 긴급한 구호요청을 받고 즉시 필요 물품 등을 마련했다.

故 金東輝동문 유족

모교에 장학기금 10억원 쾌척

1983년 미얀마 아웅산 묘역 테러사건으로 순직한 故 金東輝(정치51-55)前상공부 장관(사진)의 유족이 모교에 10억원을 쾌척했다.

모교에 따르면 기부자인 故 金東輝장관의 부인은 지난 4월 6일 모교에 기부 의사를 밝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남편의 뜻을 기리기 위해 평소 근검절약해 모은 기부금을 쾌척했다.

成樂寅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기부 사실을 알리지 않기를 원하며 모교에서 제안한 감사의 자리 또한 사양한 기부자는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하는 남편의 후배들이 경제적 고민 없이 학업에 전념하길 바란다”는 취지를 전했다.

이에 모교는 숙고 끝에 기부자의 숭고한 뜻과 고인의 애국·애교 정신을 기리고 이를 널리 알려 우리 사회의 사표로 삼고자 ‘김동휘 장학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기금은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



적 형편이 어려운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金前 장관은 1954년 모교 재학 당시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하고 駐 독일·일본·미국 대사관 외교관, 駐이란대사, 외무부 차관 등을 역임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 외교관으로서의 탁월한 역량과 성과를 바탕으로 1982년 상공부 장관으로 임명돼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신한은행 선한 인재 장학금 3억원 기부

신한은행(은행장 趙鏞炳)이 지난 4월 24일 모교에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3억원을 기부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成樂寅총장과 신한은행 趙鏞炳(AMP 70기)은행장, 임영석 부행장, 鄭聖勳(국제경제83-87)서울대지점장, 모교 李哲洙기획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모교는 成樂寅총장 취임 이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함께 생활비를 지원하는 ‘선한 인재 장학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 ‘선한 인재 장학금’에 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교는 장학금 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지원이 필요한 가계 소득 1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학생 전원에게 생활비 장학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成樂寅총장, 趙鏞炳은행장

成총장은 “글로벌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이 우리 학교의 사업에 동참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趙은행장은 “우리나라의 발전과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해 서울대와 선한 인재를 양성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1987년부터 학생회관 증축기금, 관악사 복지관 기금 등 지속적으로 모교 발전을 지원해왔다.

중국최고위 과정 개설
국제대학원

국제대학원(원장 金鍾燮)은 지난 4월 7일 중국최고위과정(CHAMP:China AMP) 제1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10조 달러 이상의 국가로 급성장한 데다,

한·중 양국간 관계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전방위적인 협력단계로 격상됐기에 사회지도층의 중국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서 출범하게 됐다.

정·관·재계 인사 60명이 21주 동안 중국의 정치·외교·경제, 역사·철학·문화를 배우게 된다.

(朴秀埏기자)

재학생의 소리



“서울대 학생들은 활동 쏠 줄 압니다”

우리나라의 ‘양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세계 최강?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선수들? 양궁하면 떠오르는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양궁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낯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서울대 양궁부 ‘활력소’는 양궁 실력의 향상 및 심신 단련과 더불어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가깝지 않게 느껴지는 양궁을 처음 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원은 나이나 양궁의 경험에 관계 없이 기한을 두지 않고 모집하며, 연습을 위한 장비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양궁은 고정된 목표에 정해진 규격의 활을 이용해 화살을 쏘아 맞추는 운동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기 때문에 지루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화살을 시위에 걸 때부터 화살이 과녁에

박히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에 집중해야 하기에 긴장감이 있고, 화살이 시위에서 떠날 때의 충격이 즐거움을 주기에,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활력소는 양궁을 좋아하는 선

다. 따로 감독이나 코치는 없고, 기존 부원들이 양궁 수업을 듣거나 따로 공부해 다른 부원들을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때로 외부 대회와 같은 교류를 통해 외부의 감독님께 부탁드려 더 정확한 자세 교정을 받기도 합니다.

2013년에 체육연구동 확장공



李 庚勳(생명과학13입)

양궁부 ‘활력소’ 주장

사로 인해 활터가 폐쇄돼 교내 대회를 열지 못하는 등 지금은 다소 활동에 제약이 있지만, 양궁 정규수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야구장에 연습장소를 임시로 마련해 정기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활동과 체계적인 훈련을 위해 외부 양궁장과의 교류 및 활동도 계획 중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참 한결같은 S노블.

함부로 만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당신께 100% 만족을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꼭 맞는 만남을 찾고자 노력하는 S노블, 만족의 크기가 다릅니다. 1%의 만남을 위한 100%의 약속, S노블

모교 야구 ‘스누리그’ 7개월 대장정이 시작됐다

초대 우승 생명공학부팀 외 35개팀 출전

마이너리그·기록십제 등
프로야구 시스템 못지 않아
등록 선수만 1천여 명 이상
선후배 ‘만남의 장’ 역할도

프로야구 개막시즌에 즈음해 모교 야구 리그인 ‘서울대학교 스누리그(SNU League)’가 지난 4월 4일 농생대 이모작스와 겨레반 밴디츠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7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현재 팀별로 적게는 1게임에서 많게는 3게임까지 치른 상태이며, 전기공학부 EBC 팀이 3전 전승으로 초반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스누리그는 단일 대학의 학내 야구리그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올 시즌을 기준으로 세 개의 조별리그, 총 35개 팀이 참가하는 학내의 대형 이벤트 중 하나이기도 하다. 각 단대나 학과 팀들은 물론, 서울대 교직원 팀과 서울대 병원 팀까지 참가해 학내 모든 구성원들을 아우르고 있다.

2013 시즌까지 A조와 B조의

상·하위 리그로 나뉘었던 스누리그는 구성팀들의 전체적인 실력상승으로 인해 작년부터 VERITAS와 LUX MEA, 두 개의 동등한 리그를 두어 운영하게 됐고, 연습이 더 필요하거나 새로 가맹한 팀들은 Minor리그로 별도 운영된다. <도표 참조>

경기시간은 한 경기당 2시간 30분으로, 매주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후 2시부터 11시 20분까지, 매주 일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진행된다. 각 팀들은 같은 리그에 속하는 팀들과 한 번씩 경기를 펼치는 풀리그 방식을 따르며, 정규리그가 끝나고 최종 순위가 결정되면 상위 팀들끼리 한 번 더 관악시리즈를 통해 진정한 강자를 가려내게 된다.

작년 시즌 VERITAS 조에서는 원자핵공학과 뉴트론즈가, LUX MEA 조에서는 생명공학부 뮤턴츠가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으며, 각 조의 상위 8개 팀이 참가한 관악시리즈에서는 경제학부 레셔널즈와의 대결 끝에 뮤턴츠가 초대 우승을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VERITAS 조와 LUX MEA 조의 하위 팀들과 Minor리그의 상위



지난해 스누리그 결승전에 진출한 생명과학부와 경제학부 선수들 모습

팀들 간에도 승격과 강등을 놓고 승부를 겨루는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다.

한편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라는 말이 있다. 타율, 방어율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이를 승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스누리그 또한 주심 이외에 기록실을 두어 경기 중의 모든 사항을 기록하며, 이러한 기록들은 경기 후 48시간 내에 ‘게임원’이라는 기록사이트에 입력된다.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자신의 타율과 안타, 도루, 홈런 수 등 다양한 항목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전체 리그 내의 자신의 순위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력향상을 위한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승부에 대한 열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스누리그의 가장 큰 매력은 인적 네트워크다. 현재 스누리그에 등록된 선수는 1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특히, ‘야구’라는 스포츠의 특성상, 구력이 실력에 큰 영향을 미치다보니 졸업한 동문들의 참여율이 다른 운동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덕분에 같은 학과를 다니면서도 학번의 차이로 인해 잘 알지 못했던 선후배 사이에서 스누리그는 연결고리가 돼주고 있다.

농생대 야구부의 배정환 씨(지역정보09입)는 “스누리그가 아니었다면 알지 못했을 선후배들과 야구를 통해 교류하며, 야구 외적으로도 여러 도움을 얻을 수 있었

VERITAS	LUX MEA	Minor
경제학부	뮤턴츠	교직원
원자핵공학	전기공학	건설환경
농생대	관악사	기계공학
한길발	공대	바시공
병원	법대	자연대
건축과	룰루치	치대
재료공학	사회대	파워
화학생물	경영대	용대원
미대	행대원	TEMP
생활대	수의대	
밴디츠	약대	
아파치	조선공학	
사이코즈	의대	

다”면서 “앞으로 졸업 후에도 야구팀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좋아하는 야구를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문들과 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梁鎭朱학생기자>

모교에 예술복합 공간 탄생

음악·미술 융합 창조적 인재 육성



모교는 지난 4월 16일 관악캠퍼스에서 미술과 음악이 공존하는 예술복합연구동(74동) 준공식을 가졌다.

예술복합연구동은 ‘언덕방’으로 불리던 기존 제2식당 부지에 총 사업비 1백50억원을 들여 연면적 9천1백64㎡,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완공됐다. 공간 내부에는 대학원 전용 실기실과 음악·미술 도서관을 조성하고 다목적 창조공간인 ‘크리에이터스 라운지’, 영상제작 스튜디오와 다용도 오디

토리엄, 전시실 등을 구축해 음악과 미술이 밀접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융합예술공간을 지향했다.

이번 예술복합연구동 완공으로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의 실습·교육 공간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은 지난 1975년 金壽根(건축50입)건축가의 설계로 건립된 예술관(50~55동)을 사용하며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모교는 미술대학의 ‘아트

비전 2020’ 사업을 통해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미술대학 발전기금 조성전시회를 열고 건축기금을 마련하는 등 동문 및 각계의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신축 연구동을 마련했다.

이날 준공식에서 成樂寅총장은 “그간 음악대학과 미술대학의 공간 부족이 심했는데 이번 예술복합연구동 준공으로 다소 해소된 것 같다”고 말한 다음 보호학문으로서 예술 분야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두 단과대학이 더욱 빛나서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우리 관악에서 더욱 발전하고 빛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모교는 미술대학 발전기금을 출연한 경운박물관 宋光子(응용미술2-66)관장과 연구동의 설계를 담당한 아이아크건축사 俞杰(건축59-63)공동대표, 시공사인 기흥건설 김정숙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준공식에 이어 음악대학에서 준비한 기법음악회 ‘내비의 꿈’이 진행됐으며, 연구동 내 갤러리에서는 ‘개교에서 오늘까지’ 전시회를 통해 동문들이 기증한 악기와 서적, 노트 등의 역사자료와 함께 음악대학과 미술대학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덕성여대 李元馥총장 특강

“21세기 포용적 자세로 대응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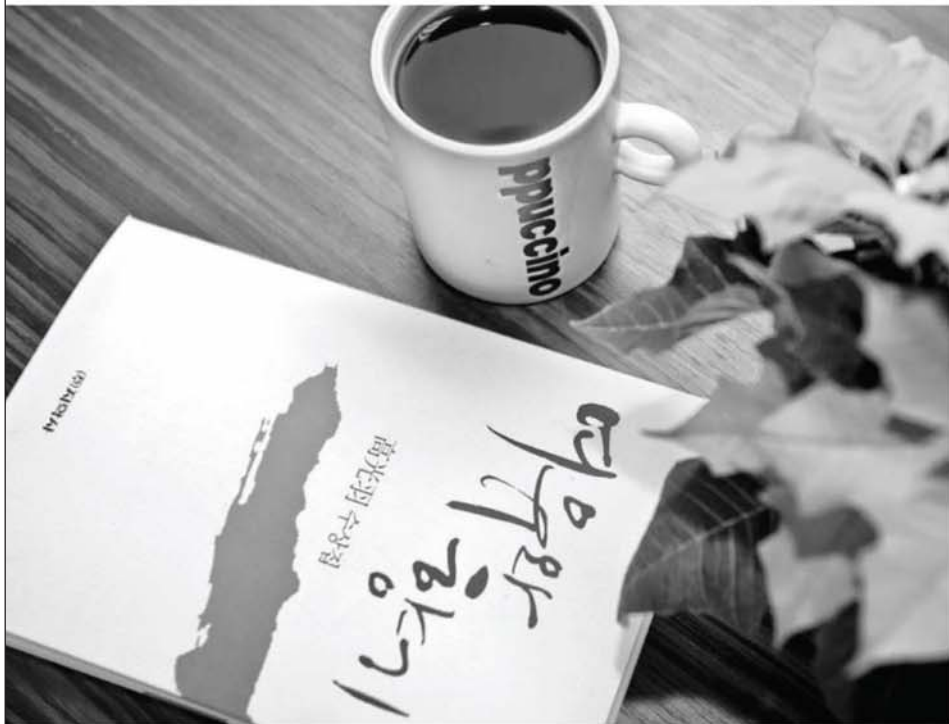
모교 관악학생생활관(관장 金大湧)은 지난 4월 2일 관악학생생활관 900동 가운홀에서 덕성여대 李元馥(건축66입)총장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21세기 세계의 변화와 그 대응’을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서 李元馥총장은 일본 내 험한 감정과 유럽의 반이슬람 정서 등의 세계적인 우경화 현상을 지적하며 “실업률의 증가와 기업 도산 등 자국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와 같은 분노와 증오 표출은 환각제 또는 진통제일 뿐,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말했다.

또한 “21세기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시대로 통합화와 함께 배타적, 분리주의적 움직임 또한 지속될 것”이라며 “절대적인 자기 자신의 힘을 가정하는 서양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해 포용적인 자세를 길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베스트셀러 ‘먼나라 이웃나라’ 저자인 李총장은 50년 넘게 만화가·만평가로 활동해왔다. 덕성여대에서 시각디자인학과 교수와 예술대학 학장, 석좌교수를 지내고 지난 2월 총장으로 부임했다. 현재 본보 논설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朴秀埭기자>



변호사 高光羽 수상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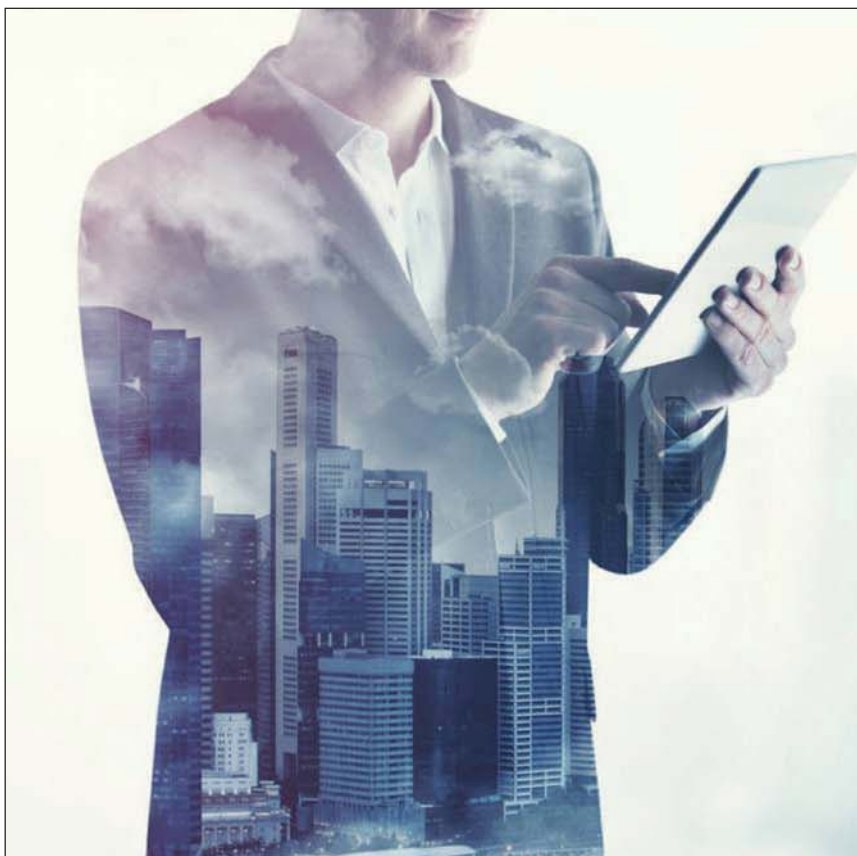
신간

여유와 향기

힘겹고 고달픈 일산의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삶의 '향기'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전화 02)330-5297

(주)지혜사



창의적 사고, 정직한 서비스, 고객의 성공에 헌신하는 부동산 분양대행 전문기업

이스트원산업개발(주)는
부동산 분양대행, 임대대행, 입주관리를 중심으로
부동산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의 효율적 미래가치를 추구합니다.



분양-임대대행
[분양기획, 관리, 마케팅]



개발대행
[인여가, 개발상담, 업체관리]



신탁/시공관리
[선정, 계약, 발주, 관리]

E.S.T ONE 이스트원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조미영

서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6-11 현대슈퍼빌 E동 902호 TEL : 02-521-0545 FAX : 02-2055-0545
부산 |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1486-4 태웅빌딩 9F TEL : 051-642-6628 FAX : 051-642-6629

도전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꿔갑니다 대한민국 산업공구의 중심 크레텍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공구. 이 공구를 위한 노력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크레텍은 국내에 유통되는 12만 5천여 산업공구에 대한 정보를 분류 집대성해 카탈로그로 발행하고,
업계 최초로 표준 가격제와 바코드 시스템, 전자주문 및 제품정보 디지털화를 구현해 산업공구 유통혁신을
이뤄왔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산업공구의 가치를 담아 내일의 빛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크레텍 책임** SINCE 1971



콩트 릴레이

한 쪽 눈을 가리세요

金 萬 玉(국문59-63)소설가



요즘은 나는 신세벽에 잠보다 먼저 깨는 고약한 쓸쓸함과 맞닥뜨리고 난감해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몸 속 어느 부분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고 아직 이부자리 숙인데도 어느 외딴 곳으로 혼자 떨어져 나온 것 같기도 하다.

아, 이 증세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갈 모양이구나.

옆에 남편 있고, 부르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자식 있는데 왜 쓸쓸하고 난리지?

죽음과의 거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인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나이 들면 누구

다. 남자 대학생이 여대생과 눈짓을 교환하더니 여고생에게 가만히 뭔가를 쥐여 준다. 버스 회수권이다. 여자 대학생의 뒷좌석에 앉아있던 나는 그때야 ‘아!’하고 깨닫는다.

여고생이 차장에게 차비가 없다고 고백했고 그 말을 들은 남녀 대학생이 눈으로 의논을 한 끝에 남자 대학생이 여고생에게 버스 회수권을 쥐여 준 줄거리를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그 메모들 중에 두 중학생의 하룻길 묘사도 재미있다.

어느 길모퉁이에서 멈춰 선 한 녀석이 다른 녀석에게 책가방을 부탁하고 잠시 어딜 다녀오겠다 한다. 두 개의 책가방을 지키다

리에게 밥까지 지어바치게 하고 이야기상대로 붙들어두는 것이었다.

그럴 때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살림에는 둘째거리면 서러워할 정도로 손방인 노인이 이야기하기는 저다지 좋아할까 하며 투덜거리다가도 장지문 저쪽 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말들을 놓쳐버리기 아까워 수첩에 적었던 것이다. 일변 흥보고 일변 밥하고 일변 메모하는 그때의 내 모습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물 건너가는 개처럼 상패기를 치켜들고,’ ‘콩죽 쑤어먹고 설사나 놔 밑구녕처럼 질질 씨부린다.’

‘형깁 먹은 강아지처럼 돌아간다.’

‘저길 빼낸 여자는 속병 없겠다.’

‘엉덩이 쏘아보라. 뽕 빠져나왔나.’

‘귀 떨어진 건 내일 와서 줍겠다 하고 뚫다.’

‘쇠경 물 건너가는 소리한다.’

‘비행기에서 낙하산 탄 사람들이 검부러기 떨어지듯 떨어진다.’

‘큰집 사람이 은장도 차니까 저는 식칼 차고 나선다.’

‘돼지 오줌통에 바람 넣은 것처럼 부풀어서.’

‘물에 잠긴 용소리를 한다.’

뚜렷이 할 일도 없으면서 신세벽에 일어나 다른 식구들 새벽 잠을 깨우고 밥 재촉하는 사람에게는 ‘새벽 동자 지어먹고 과거 보러 가냐’고 할란 했다.

어머니는 이야기 속 상황에 따라 적절한 비유를 썼고 나는 번번이 흥을 보다가도 속으로 감탄을 했던 것이다. 물에 잠긴 용은 어떤 소리를 할까. 앞 못보는 사람이 물을 건너갈 때는 또 어떤 소리를 낼까?

시어머니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나는 나름대로 뜻풀이도 하고, 그 상황을 그려보기도 했다. 물에 잠긴 용은 웅얼웅얼하겠지. 앞 못보는 사람이 물 건너가려면 오죽 시골 벽적할까, 하면서.

그런 내 눈앞으로 살면서 본 여러 유형의 인간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지나갔다. 잘 난척하고 물 건너가는 개처럼 고개 바짝 들고있는 자가 지나갔고 별 내용 없는 이야기를 끝없이 주절거리며 앉아있는 그, 혹은 그 녀도 보였다. 아니 아니 콩죽 쑤어먹고 설사하는 놈 밑구녕처럼 질질질 씨부린다는 대목에서는 무엄하게도 깎지 낀 손가락을 쫓지락거리며 무릎을 감싸안고 끝없이 이야기하며 앉아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시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항상 무릎을 감싸안고 양쪽 엄지손가락을 교차시켜 둘러며 끝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고약하게도 돼지 오줌통에 바람 넣은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뚜렷한 이유 없이 허황한 꿈에 부풀어 살아온 나 자신의 지나온 삶의 일부가 보이는가 하면 형깁 먹은 강아지처럼 불안하고 초조해서 맴을 돌고 있는 나의 모습도 보였다.

귀 떨어진 건 내일 와서 줍겠다 하고 비겁하게 도망친 적은 없는가.

그런 자문을 할 때쯤에는 예기치 않은 자

괴감이 밀려왔고, 그것은 신세벽에 나를 덮치는 그 쓸쓸함과 많이 닮은 것 같았다. 조금 전까지 돼지 오줌통에 붙어붙은 바람처럼 내 몸속에 부풀어있던 유쾌함의 덩어리가 빠지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다.

이 따위 쓰레기들을 갖고 무슨 대단한 정리를 한다고?

외락 쥐고있던 수첩 쪼가리들을 통째로 찢어버릴 참이었다. 내 난폭한 동작을 멈추게 한 것은 ‘한쪽 눈을 가리세요’라는 문장 하나였다.

“아니, 이게 뭐였지?”

거기 수첩에 그 글귀가 적힐 때의 장면이 세세히 그려져 있었다.

사위와 그의 처제인 내 작은 딸과 내가 책 정리를 하다가 잠시 쉬고있을 때였다. 1980년대 마지막 해의 어떤 문학상 수상 작품집을 가운데 놓고 둘러앉아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수상작의 제목은 ‘겨울의 환’이었고, 후보작들 중에 내 작품도 끼어있었다. 딸이 말했다.

“엄마는 틀렸어요. 하다 못해 소설 제목이 ‘겨울의 땃’이나 ‘안개의 환’ 정도는 돼야지, 맨날 멧대거리 없이 무슨무슨 우체국장이니, 아버지의 무슨 손금고니, 돌맹이 두 개니 수상작이 될 리가 있어요?”

나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뭔가 이상한데 딱히 뭐가 이상한지 알 수 없었다. 최근에 그 애가 ‘간밤에 천개번둥 때문에 한잠도 못 잤어요’ 했을 때 어딘가 이상하긴 한데 꼭 짚어 말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때도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던 것이다. ‘겨울의 환’을 ‘겨울의 땃’이라 하며, 단어를 도치시켜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걸 한참만에 깨닫고 웃음을 터뜨렸던 것이다.

그때 듣고있던 사위가 제 처제 말에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그런데 내 사촌 별정우체국장 과 아버지의 작은 손금고는 저도 읽었지만 돌맹이 두 개는 처음 듣는데요.”

“형부는 못 읽었어요? 엄마의 작은아버지 한 분이 일제 말 징용에 갔다가 유골로 돌아오셨는데 그 유골함 속에 유골은 없고 돌맹이 두 개가 들어있었대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제목이 바로 돌맹이 두 개죠. 얼마나 건조하고 멧대거리 없는 제목이예요?”

“왜요? 좋은데요. 건조하긴 해도 사실적 맛이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제목이 문제라 아니라 어머니의 사진이 문제라 생각하는 편이예요. 이 책표지에도 보세요. 오십대로 막 접어들 때인데도 지금과 똑같이 할머니 헤어스타일이잖아요. 그 헤어스타일로 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분위기가 있어야죠. 다음 번에는 어머니도 앞머리를 길러 안 보일 정도로 이마를 덮든지 옆으로 늘어뜨려 한 쪽 눈을 가리세요. 다른 여성 작가들처럼 멋있게요.”

그때 우리 셋은 동시에 폭소를 터뜨렸다.

말한 장본인이나 나머지 두 사람 다 머리를 길러 한쪽 눈을 가리며 늘어뜨린 내 모습을 상상하다 보니까 터져 나온 웃음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한 쪽 눈을 가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니까.

•金동문은 197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순례기’가 당선돼 등단했다. 주요 작품으로 ‘내 사촌 별정 우체국장’, ‘흔적’, ‘보청기’, ‘그 말 한마디’ 등이 있다.

“

이런 메모들은 수없이 많았다.

마치 쓸쓸함을 치유해주는 묘약이

그 메모들 중에 있거나 한 듯 어느새 나는

유쾌해져서 그 메모들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그 쓸쓸한 재미는 돌아가신 시어머님의

어록들에서 절정을 이뤘다.

”



일러스트레이터 蘇余廷 (디자인09-13)

나 다 한다는 주변 정리라는 걸 해야겠다 생각했다.

따로 정리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래봤자 글로 남긴 흔적들을 정리하는 일일 수밖에.

우선 죽고 나서 남이 보면 창피할 것 같은 일기장들을 태워버려야겠다 생각했다. 그런데 정작 일을 시작하다 보니 일기와 무관하게 낱장으로 여기 저기 끼어있는 수첩 쪼가리들이 먼저 눈에 띄었다. 소위 메모라는 것들이었다.

찢어버릴 건 찢어버리고 버리기 아까운 건 제대로 된 노트에 옮겨 적기로 했는데 그것들을 읽다 보니 버리고 싶은 게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였다. 버리고 싶기는커녕 메모할 때의 상황이 생생하게 펼쳐지고 점점 내 몸 속에 활기가 느껴지고 입가에는 서서히 웃음기가 번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아름다운 장면들, 기가 막히는 장면들, 새삼 화나는 장면들, 그냥 재미있는 장면들.

버스 차장이 있던 시절의 장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남자 대학생은 서있고 여대생은 앉아있다. 그들은 동행이다. 어떤 여고생이 버스에 올라 남자 대학생 옆에 선다. 여고생이 다가온 차장에게 가만가만 뭔가를 이야기하

지친 놈이 제 것만 갖고 가버린다. 교통수경이 길가에 버려진 책가방을 수상히 여겨 가까운 과출소에 맡긴다. 책가방을 검사해본 과출소 경관이 책가방 주인집에 알린다. 아이늬은 오지 않고 책가방만 돌아온 집이 발각 뒤집힌다.

이런 메모들은 수없이 많았다. 마치 쓸쓸함을 치유해주는 묘약이 그 메모들 중에 있거나 한 듯 어느새 나는 유쾌해져서 그 메모들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읽기 중독자인 내가 남의 작품들을 읽을 때만큼이나 재미가 쓸쓸했다는 뜻이다. 그 쓸쓸한 재미는 돌아가신 시어머님의 어록들에서 절정을 이뤘다. 물론 그때그때 메모해둔 낱장들을 모아놓은 것이었다.

이 세상에 만 백년하고 이들을 더 머물다 연전에 저 세상으로 가신 시어머니의 어록이 여기저기에 “여봐라”하듯이 적혀있었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아무나 붙들고 이야기하기를 유난히 좋아했다. 당신의 자식들은 물론 사돈처녀, 사돈종각, 앞집 아줌마, 뒷집 아줌마, 건넌방 새댁, 그 새댁의 신랑, 모두가 이야기상대로 좋았다. 심지어는 우리 집에서 가사를 도와주던 여성이 지나는 길이라면서 잠시 인사차 방문할 때 이제 그만 보내도 되겠다 싶는데도 기어이 바쁜 며느



대한민국의 중심 꿈을 이루는 창의공동체

"사람이 대학을 귀하게 만듭니다."

융복합형, 창의형, 문제해결형 인재를 양성하는 열린 대학
학생이 만족하는 대학
취업과 창업에 아낌없이 지원하는 꿈을 이루는 대학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대학교가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갑니다.

총장 윤여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 대학원 약학박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역임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국가고객만족도
4년 연속 1위!

**롯데
마트**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변함없는 격려와 사랑으로 롯데마트가
2014년 국가고객만족도 대형마트 부문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을 잘 알고 만족시키는 1등 롯데마트가 되겠습니다!

www.songwonhosp.com

송원의료재단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속에서
늘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Songwon Hospital · Songwon Sanatorium

+ 모시는 분야

- 치매 / 중풍 / 고혈압 / 당뇨 / 뇌졸중 / 희귀난치성질환 / 만성신경계마비질환
- 스스로 거동이나 활동이 어려워 간병이 필요하신 분.
- 각종 수술후 회복기나 병원퇴원 후 의료적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
- 한방진료도 가능하며, 기타 각종노인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

+ 오시는 길

- 서울에서 1시간대, 충주의 관문,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IC입구,
- 수안보, 양성온천 휴양지 충주,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



송원요양병원
송원요양원

충주시 주덕읍 신양로 62
대표전화: 043-853-0022



서울대 SPARC, 과학기술혁신최고전학과정 (19기)
송원의료재단(송원요양병원, 송원요양원)
이사장/회장 김종순

동 정

수 상

▲李京姬(약학56졸 수필가)=지난 5월 1일 한국문인협회(수필분과)가 주최한 제15회 수필의 날 기념식에서 제8회 올해의 수필인상 수상.

▲高奉鎭(철학57-64 계간수필 발행인)=지난 5월 1일 한국문인협회(수필분과)가 주최한 제15회 수필의 날 기념식에서 제8회 올해의 수필인상 수상.

▲權光重(법학61-65 前법조윤리위원회 위원장·변호사)=지난 4월 24일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徐大錫(국문61-65 모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지난 5월 7일 수당재단으로부터 제24회 수당상(인문사회 부문) 수상.

▲金明子(화학62-66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이사장·본회 부회장)=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 및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수훈.

▲朴聖炫(화학공학64-68 모교 통계학과 명예교수·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 및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수훈.

▲朴貴媛(의학66-72 중앙대 임상석좌교수)=지난 4월 11일 한독과 한국여의사회로부터 한독여의사학술대상 수상.

▲金源培(제약67-71 동아ST 대표)=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 및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수훈.

▲梁東烈(기계공학69-73 KAIST 교수)=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 및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수훈.

학기술훈장 창조장 수훈.
▲趙煥益(정치69-73 한국전력공사 사장)=오는 5월 22일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제47회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

▲鄭鎮可(동물학69-74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지난 5월 7일 수당재단으로부터 제24회 수당상(기초과학 부문) 수상.

▲俞昱濬(식물70-74 KAIST 교수)=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 및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수훈.

▲趙世衡(전문기상71-75 한국전문연구원 연구위원)=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 및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수훈.

▲洪珍鈞(계산통계72-77 한국의대 교수)=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 및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홍조근정훈장 수훈.

▲元喜睦(약학73-77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지난 4월 7일 제43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錢英燮(경제76-80 모교 경제학부 교수)=지난 4월 7일 매경미디어그룹으로부터 제45회 매경이코노미스트상 수상.

▲成明勳(의학76-82 UAE 세이크 칼리와 전문병원장)=지난 4월 7일 제43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녹조근정훈장 수훈.

▲金聖勳(제약77-81 모교 제약학과 교수)=오는 6월 1일 호암재단으로부터 제25회 호암의학상 수상.

▲金昌津(기계공학81졸 미국 UCLA 교수)=오는 6월 1일 호암재단으로부터 제25회 호암상공학상 수상.

▲洪性柱(물리81-85 SK하이닉스 부사장)=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 및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수훈.

▲權恩禧(대학원84졸 국회의원)=지난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통신학회로부터 정보통신대상 수상.

▲姜京希(외교84-88 조선일보 사회정책부장·본보 논설위원)=지난 5월 14일 제32회 최은희여기자상 수상.

▲金範朱(산업공학86-90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 및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산업훈장 수훈.

▲鄭恩鎭(동양화89-93 사진작가)=지난 4월 9일 서재필기념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5회 서재필언론문화상 수상.

▲全弘鎭(의학91-97 삼성서울병원 교수)=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학술상' 수상.

▲김대형(응용화학96-00 모교 화

학생물공학부 교수)=지난 5월 7일 유민문화재단으로부터 제6회 홍진기 창조인상(과학기술 부문) 수상.

▲李東根(ACAD 57기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지난 4월 1일 제1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鄭成敏(HPM 28기 진성메디이사)=최근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총회에서 의료가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장 수상.

▲具滋寬(ALP 15기 삼구아이앤씨 대표)=오는 5월 22일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제47회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

인 사

▲金在鎬(행정51-55 前국회의원·한국이스라엘친선협회장)=지난 4월 14일 한일친선협회중앙회 이사장에 선출.

▲李敦求(임학65-69 前산림청장·모교 명예교수)=지난 3월 18일 (사)생명윤슬 국민운동 이사장에 취임.

▲李鴻薰(법학65-69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본회 부회장)=지난 4월 8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朴國朱(법학67-71 前사법연수원장·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지난 4월 9일 임기 3년의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임명.

▲崔鍾植(상학68-73 쌍용자동차 영업부문 부사장)=지난 3월 24일 쌍용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李賢享(기계공학69-73 두산 부회장)=지난 4월 21일 울산과학기술대(UNIST) 제6대 이사장에 선출.

▲郭炯佑(의학69-76 경희대 교수)=최근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태평양안과학회(APAO) 회장에 선출.

사회공헌 1위 은행

100%국내자본은행

고객 수 2700만명

NH농협은행이 고객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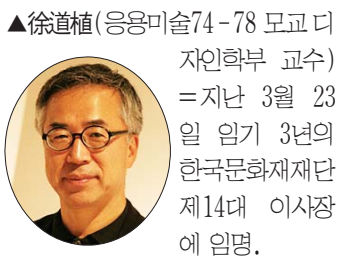
꿈을향해 더저라

NH농협금융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증권 NH농협캐피탈 NH농협신용 NH-CA자산운용



▲金道然(재료공학70-74 前교육과학기술부 장관·모교 초빙교수)=지난 4월 23일 포스텍 제7대 총장에 선임.

▲金承禧(약학74-78 前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지난 4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임명.



▲徐道植(응용미술74-78 모교 디자인학부 교수)=지난 3월 23일 임기 3년의 한국문화재단 제14대 이사장에 임명.

▲李炳鉉(불문75-79 前주노르웨이 대사·국립국제교육원장)=지난 4월 20일 유네스코 대사에 임명.

▲禹得禎(영문75-79 前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지난 4월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이사에 임명.



▲元允禧(경제76-80 서울시립대 총장)=지난 4월 13일 국제청 제2대 국제행정 개혁위원장에 위촉.

▲李丙來(무역81-85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지난 4월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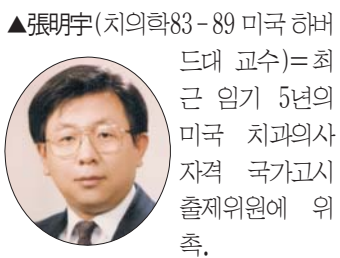


▲金泰碩(행정81-88 前여성가족부 차관)=지난 5월 15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초대 이사장에 임명.

▲洪潤五(신문82-88 前한국일보 기자·前한국콘텐츠진흥원 감사)=지난 3월 23일 국회 홍보기획관에 임명.

▲申昌燮(수의학82-89 벼박코리아 대표)=지난 4월 9일 한국양돈수의사회 제24대 회장에 취임.

▲李塚彌(행정83-87 前고용노동부 장관·모교 행대원 초빙교수)=지난 4월 1일 경상일보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



▲張明宇(치의학83-89 미국 하버드대 교수)=최근 임기 5년의 미국 치과의사 자격 국가고시 출제위원에 위촉.

▲金淳哲(행정85-88 前중소기업청 차장)=지난 4월 16일 중소기업청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7대 회장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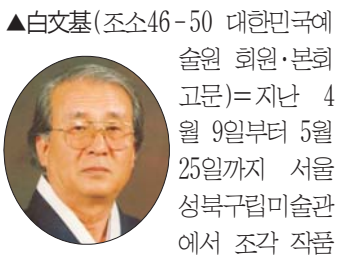


▲金尙白(HPM 11기 한국정신문화복지재단 이사장)=지난 4월 16일 한국불교태고종 종정 예경실장에 재임명.



▲柳鍾琪(ABKI 4기 주택건설신문 회장·선진한국 발행인)=지난 4월 25일 고흥류씨중앙총친회 제18대 회장에 선임.

행 사



▲白文基(조소46-50 대한민국예술원 회원·본회 고문)=지난 4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서울 성북구립미술관에서 조각 작품

전 개최.



▲宋庸植(법학51-55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4월 28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모교 吳秉熙병원장을 초청, '미래 의료의 트렌드'를 주제로 조찬포럼 개최.

▲安秉勳(행정57-61 도서출판 기파랑 대표·본회 부회장)=지난 4월 18일 서울 동송동 샘터빌딩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개최.



▲李起台(불어교육59-67 스타인터내셔널 대표)=최근 세 번째 산문집 '별을 향해 나는 반딧불처럼'(베스텐북스刊)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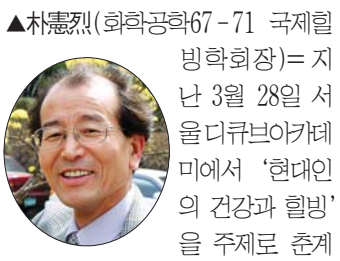
▲辛鉉雄(지리64-68 웅진재단 이사장·본회 부회장)=지난 4월 15일 라울 허넨 데즈 주한필리핀 대사와 다문화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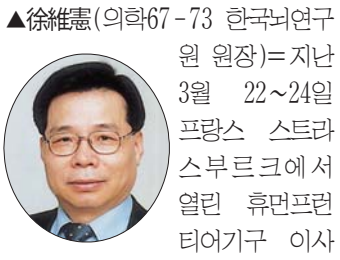
▲朴憲烈(화학공학67-71 국제화학회장)=지난 3월 28일 서울 디큐브아카데미에서 '현대인의 건강과 힐링'을 주제로 춘계

학술행사 개최.



▲徐維憲(의학67-73 한국뇌연구원 원장)=지난 3월 22~2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열린 휴먼프런티어기구 이사

회에 참석.



▲諸海成(건축71-75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지난 4월 2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한옥, 함께 쓰기'를 주제로 국가한옥센터 주최 제1차 한옥포럼 개최.



▲金明坤(독어교육71-76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지난 4월 3~19일 서울 국립극장 KB하늘에서 고전 심청전을 재해석한 마

당극 '아빠 철들이기' 공연.

▲李昌雲(한대원80-85 한국교통연구원장)=지난 4월 24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교통투자재원의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李奉柱(사회복지81-85 모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회장)=지난 4월 17~18일 경남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학술대회 개최.

▲崔眞珠(회화81-85 한국화가)=지난 4월 21~30일 대구 렉스 갤러리에서 '풍경'을 주제로 열 두 번째 작품전 개최.



▲趙潁新(기악89-93 한국산업기술평가 전문연구원·퍼커셔니스트)=오는 5월 17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李琤姪(기

악90-94 피아니스트)·趙允新(기악91-95 오보이스트)·김민이(기악00-04 클라리네스트)등문 등과 앙상블 MI-U 정기연주회 개최.

▲김정은(기악00-04 첼리스트)=지난 5월 6일(대구시민회관 챔버홀), 15일(서울 한남동 일신

홀) 베토벤, 포레, 히나스테라 등의 작품으로 첼로 독주회 개최.

▲南熙龍(ALP 20기 주택산업연구원장)=지난 4월 2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활용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 참가 명부를 씁니다 ■

- ▲金熏洙(생물46-49 모교 명예교수)=4월 22일 별세(92세)
- ▲鞠亨雄(화학공학46-49 고려대 명예교수)=4월 7일 별세(88세)
- ▲安丙元(성악50졸 작곡가)=4월 5일 별세(89세)
- ▲金 建(정치52졸 前한국은행 총재)=4월 17일 별세(86세)
- ▲金周完(의학46-53 모교 명예교수)=4월 9일 별세(86세)
- ▲朱寧寬(사회48-57 前국회의원)=4월 4일 별세(87세)
- ▲金德朱(섬유공학51-55 장천화학 회장)=3월 24일 별세(82세)
- ▲李秉建(영어교육57졸 모교 명예교수)=4월 11일 별세(82세)
- ▲趙鏞步(농생물54-58 前모교 부총장)=4월 20일 별세(81세)
- ▲黃元五(경제56-60 세무법인 삼신 대표)=4월 8일 별세(76세)
- ▲朴普茂(행정57-61 前광주지법원장)=4월 27일 별세(78세)
- ▲李在度(공업교육68-76 前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4월 22일 별세(67세)
- ▲成完鍾(AMP 32기 前경남기업 회장)=4월 9일 별세(64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 e메일 : snua1969@naver.com 또는 snua@korea.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한국도선사업회는 깨끗한 바다, 풍요한 바다, 안전한 바다를 모토로 해양 환경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아갑니다

격랑을 헤치고
치친 선체를 항구로
인도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안전’
우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이어주며
또 하나의 가족인 푸른 바다를 향해
오늘도 우리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습니다.

한국도선사업회 나중팔 회장
서울법대 ALP16기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한국도선사업회 홈페이지
(www.kmpilot.or.kr)에서 도선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Global Partnership

세상을 만나는 또 다른 길... 국제교류증진협회가 함께합니다. (대표 강대현 : 서양사학 72入)



“국제교류증진협회는
98년이래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
최고의 전문지원기관입니다.”

본부 | Tel. 02 762 3513~5 Fax. 02 762 3516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94길 33 한국의교협회 3층
국제협력사업부 | Tel. 031 777 2640 / 031 8017 2650 전시컨벤션사업부 | Tel. 031 8017 2655 여행사업부 | Tel. 031 8017 2691

What to Do!



여행사업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 글로벌 여행 최적의
발권 서비스

전시컨벤션사업

국제회의, 학술대회, 전시운영 등의 전문적 진행

국제연수사업

전세계 각계인사들의 대규모 초청, 파견 및
공공외교 지원 등

<http://www.global-inepa.org>

DiD 단일시스템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91-3
T. 02. 3445. 1661 F. 02. 543. 7920
E. bdjang@unitel.co.kr

www.danil.co.kr

세상 모두가 행복을 추구합니다.



단일의료(주)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약품제조허가를 득한 의료용 가스 제조 및 판매
회사로서, 의료용 산소, 의료용 아산화질소, 의료용 질소, 의료용 탄산가스를 제조하여
각 병원에 납품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의료용 가스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코자 의료용가스 중앙공급장치에 대해서도 보건
복지부로부터 제조 허가를 득하였으며, 2001년에는 국내최초로 의료용가스에 대해 ISO인
증을 독일의 유로서트(EURO-CERT)사로부터 획득 하여, 더욱 완벽한 품질의 의료용 가
스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소발생기, 휴대용 산소 등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실시하는 재택산소 요법을 20여년 오
직 의료용가스만을 고집해온 단일의료(주)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회장 장 병 덕(화학교육과 53入)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국내외에 확산시킬 수 있는 나라가
새로운 글로벌 시대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신 간

한반도 통일관련 평론집
— 金哲洙 지음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인 모교 법학부 金哲洙(법학52-56 본보 논설위원) 명예교수가 그동안 한국 공법학회, 데일리한국, 대한언론인회 등을 통해 발표한 한반도 통일관련 논문과 평론을 한 권에 담았다.

신 냉전기 한반도의 통일정책, 신 냉전기 주변강국의 한반도 정책, 남북한의 통일 정책, 통일헌법의 바람직한 미래상, 통일법제연구의 과제와 전망, 헌법개정안 발안의 적기와 내용 등을 다루고 있다. <한국헌법연구소刊·비매품>

세상의 빛, 어머니 사랑
— 權赫昇 편저



서울경제신문 사장을 지낸 한국경제전략연구원 權赫昇(상학53-57)이 사장이 한국의 효사상을 주

제로 엮은 ‘세상의 빛, 어머니 사랑’을 출간했다. 이 책과 영문판 ‘THE LIGHT OF THE WORLD, MOTHER’S LOVE’는 사회 지도층과 문인 등 63명이 효 주제 작품 70여 편을 실었다.

‘효사상 세계화의 발원지 강릉’을 부제로 한 책은 △효의 고장 강릉-신사임당과 이율곡 △어머니 나의 어머니 △어머니는 삶과 사랑의 원천 △思母亭 공원의 思親詩 △사친문학의 요람 사모정 △백교문학상 수상작품순으로 구성돼 있다. <정은출판刊·값16,000원>

내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 鄭泰範 지음



교육부 편수국장을 거쳐 한국교원대 교수 1호로 교수부장과 대학원장을 지낸 鄭泰範(교육행정58-64)명예교수의 단상집. 평소 야생화와 정원 가꾸기를 좋아한 鄭동문은 무엇보다도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느껴진다. 단상의 여러 곳에서 가족과 화목하는 정경이 손에 잡힐 듯 그려진다. 張錫周시인은 “이 단상집은 내면의 충일과 영혼의 고요함으로 빛난다”며 “누군가 이 책을 펼쳐 읽으며, 鄭선생의 향기로운 생각과 그윽한 사색에 바탕을 둔 맑은 삶을 만난다면 큰 행운을 얻은 것”이라고 말한다. <홍영사刊·값15,000원>

별을 향해 나는 반딧불처럼
— 李起台 지음



스타인터내셔널 李起台(불어교육59-67)대표가 세 번째 산문집을 펴냈다. 이 책은 1부 미국배경, 2부 기타국가 배경, 3부 국내 배경 등으로 나뉘어 정리했다.

작가는 그 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경험한 것들을 때로는 리포트 형식으로, 때로는 여행기 형식으로 써 오다가 이번에 산문집으로 탄생시켰다. <베스텐북스刊·값13,000원>

간접살인
— 金鎭洙 지음



한국문인협회 위원, 한국소설가협회 회원인 金鎭洙(농공학62입)동문이 중편소설을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출간했다.

작가는 인간이 창조의 질서인 진리와 정의에 합당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때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작품세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이 작품에서도 작가는 “과연 이 세상에 정의는 살아 있는가? 거짓과 기만은 더 이상 가증스럽거나 충격적인 일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이며, 사실의 선별과 실재사건의 조작을 통해 거짓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오늘날 정치 등 각 분야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진리와 정의가 짓밟히고 있는 사회의 한 권역을 픽션으로 구성해 간접살인 행위에 합류하고 있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문학방송刊·값10,000원>

가끔은 이런 날이
— 시 鄭燦宇·번역 崔鴻圭

현우트레이딩 鄭燦宇(상학64입)대표의 시 50여 편을 중앙대



崔鴻圭(교대원65-67)명예교수가 영어로 번역한 시집. 鄭동문은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이면서 시를 쓰는 창작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그는 2005년부터 문예잡지 ‘문예사랑’을 꾸준히 발행하며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힘쓰고 있다. 鄭동문은 이 시집을 통해 삶의 의미와 성찰을 진지하게 그려내며 서정성을 넘어 이지적인 위양스를 독자에게 환기시킨다. 주제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넓어서 시의 숲속을 거니는 것 같다. <말레刊·값10,000원>

한국 현대사
— 郭贊浩 지음



민주평통서울시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인 郭贊浩(신대원69-71)동문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부터 6·25전쟁 휴전까지의 실록을 신문에 전제한 자료를 모아 단행본으로 펴냈다. 郭동문은 발간사에서 “역사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기록하고, 바르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돼 당시 살아 있는 증인으로서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다. <신광刊·값15,000원>

존재의 초상
— 朴魯東 지음



한국응용생명화학회 회장, 전국농림기술개발연구사업단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朴魯東(농화학70-77)교수의 산문집.

고향과 가족, 학교와 여행, 학자로서의 경험을 다룬 그의 산문은 단순한 신변잡기를 뛰어넘어 자연과학자로서의 안목과 인문적 사색이 결합된 독특한 개성으로 사소한 사물들에서도 생명의 비밀과 인생의 지혜를 경이롭게 간파해 낸다.

차동문은 “이 산문들은 고독할 때, 연구실에서, 외국에서, 부딪힐 때, 풀리지 않아 몸부림칠 때, 만족과 환희의 절정에서, 스스로 다독거린 기억들”이라며 “이들이 폭발 직전의 억압된 정신에 숨구멍을 뚫어줬으며, 피폐해지는 영혼에 자유의 자양을 공급했다”고 소개한다. <문학들刊·값13,000원>

공연

서울 유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6월 5일 영산아트홀



서울 유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인 성신여대 金東守(기악82-90)교수(사진)가 6월 5일 오후 7시30분 서울 영산아트홀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날 로시니, 라이네케, 베토벤 등의 작품으로 웅장하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조윤경·조소연
피아노 조인트 리사이틀
— 6월 5일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趙允敬(기악91-95)동문(사진左)과 조소연(기



악94-98)동문(사진右)이 6월 5일 오후 8시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노 조인트 리사이틀을 갖는다. 이날 趙允敬동문은 베토벤, 카푸스틴의 작품, 조소연동문은 리스트, 베토벤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성경주 바이올린독주회
— 6월 6일 예술의 전당



바이올리니스트 성경주(기악04졸)동문(사진)이 6월 6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를 연다.

하음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약 중인 성경주는 이날 코른골드, 모차르트, 슈트라우스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 입문
— 黃壽淵 옮김



경성대 행정학과 黃壽淵(경영72-79)교수가 애덤스미스언구소 에이먼 버틀러 소장의 책을 번역했다.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은 우리에게 인간 선택을 형성하는 데서 시간과 무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쳐 줬다. 그것은 화폐가 무엇인지, 왜 경제적 호황이 변함없이 불황으로 바뀌는지, 왜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이 잘못된인지, 그리고 기업이 정신의 결정적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해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에이먼 버틀러는 이러한 생각들을 알기 쉬운 비전문적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 <리버티刊·값12,000원>

비어 하늘 가득하다
— 權度重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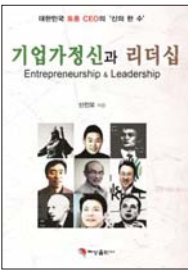
1974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한 權度重(ACAD 49기)동문의 네 번째 시집.

제이케이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權동문은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인



협회, 오늘의 시조시인협회 회원이며, 한국시조시인협회 감사로 활동 중이다. 이 책은 크게 5부로 구성된 성패 ‘연어의 귀소’, ‘없어서 아쉽다’, ‘비어 하늘 가득하다’, ‘초원의 빛’, ‘사랑은 허무는 것’ 등을 주제로 한 70여 편을 수록하고 있다. <고요아침刊·값10,000원>

기업가정신과 리더십
— 申鎭梧 지음



서울과학기술대 외래교수로 활동 중인 호서대 사업기획단 申鎭梧(BCP 9기) 단장이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인 리더십에 관한 내용을 모았다.

학문적인 설명보다는 기업가정신과 리더십을 구현했던 인물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했으며, 특히 기업가정신을 다룬 사례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위대한 기업가의 사례를 다루기보다는 보통의 사람이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노력해 성공한 사례를 담았다. <해성출판사刊·값18,000원>

www.sh-tek.com

고객제일주의 정신을 기본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전자, 반도체, 제약,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전반에 축적된 경험치를 바탕으로 고객 편의를 고려한 머신 비전 시스템 솔루션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숙련된 머신 비전 전문가를 통한 1:1 맞춤 컨설팅 제공으로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사 관련 문제를 해결하며, 고객의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능동적인 기술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윤성환 (SPARC 2271)

In-Sight Vision Systems 코그넥스 In-Sight® 비전 시스템을 검사 및 식별, 부품 가이드 등 모든 것을 완벽한 비전 시스템입니다. 라인 스캔 및 컬러 시스템을 비롯한 광범위한 모델을 통해 다양한 가격대와 성능 요건을 부합시켜 제품 품질 향상과 제조 비용을 크게 절감 할 수 있습니다.

Dataman Series 업계최고의 판독률을 자부하는 코그넥스 Dataman® 리더기는 전방위 바코드 판독에 최적화 되어 있으며, 다양한 디코딩 소프트웨어와 판독 툴을 통해 높은 판독률과 고속, 고성능 판독이 가능합니다.



(주)에스에이치텍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6번길(고색동 229-36)
T. 031. 425. 4694 F. 031. 425. 4695



정평상 수상
국민권익위원회
2011~2014년도 부패방지 사책평가
4년 연속 '우수' 이상 등급 획득

금융으로 더 큰 행복을 만들고 싶다면!
5천만 국민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은행,
Sh수협은행과 만나보세요

우리는 Sh수협은행입니다



www.shyup-bank.com 고객센터 | 1588-1515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 누구나 Sh수협은행과 함께하세요

대출받을 때 • 적금들 때 • 환전할 때 • 보험들 때 • 인터넷뱅킹할 때 전국 어디서나

더 나은 미래를 함께하는
Sh 수협은행

Halla
주|인력

좋겠다. 서울대 신도시 엄마들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2차

5월! 2차
분양예정

한라비발디
CAMPUS

서울대 교육특화를 누리는 2차 2,695세대

EDU PLAN
단지 옆 서울대 시흥캠퍼스(예정)
단지 옆 서울대 사범대 협력형 초·중·고교(예정)
단지 내 서울대 위탁운영 어린이집·유치원(예정)

LIFE PLAN
단지 옆 서울대학교 병원(예정)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예정)
갯벌과 바다조망을 선사하는 총 6km 수변공원

HOUSING PLAN
총 6,700세대 교육특화 주거단지·빅 브랜드 타운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 1·2·3차

총 2,695세대 69㎡ / 84㎡ / 113㎡ / 133㎡ 문 **1688.2600**
시흥 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타운(주) 서울 **Halla** 주|인력 의

※본 홍보물은 현재(2015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서울대 사범대학 협력형 학교 지정시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지 내 서울대 위탁운영 어린이집·유치원은 서울대와 협의중인 내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교육 협력 지원센터 및 사립 교육프로그램 등은 현재 검토중인 내용으로 추후 변경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종 개발계획, 예정사항 등은 사업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 1항에 의거 적용됩니다.

한라 전속모델
금난새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5년 3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2015. 2. 5~2015. 3. 10) · 일반 (2015. 2. 5~2015. 3. 11)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 총동창회비 납부 계좌 (성명과 입학연도 기재)
농협 079-01-442414 / 신한 140-001-180304 / 우리 1005-401-137376 / 국민 827-01-0248-009 (예금주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총동창회 홈페이지 (www.snua.or.kr)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회 장 단

△부회장 禹仁性= 1백만원

관 악 회

△이 사 李禮植= 30만원

평생회비

〈이사〉 △강동원 AMFR27
△권광중 법대61 △김승재 사대71
△김인수 AIP10 △김학무 공대78
△김향숙 약대77 △문동준 농대70
△박대영 ABP30 △박동하 GLP27
△박석환 AMP75 △박영서 AMP14
△박요찬 법대81 △서요한 법대85
△성문용 법대63 △송환용 농대83
△신상호 음대74 △윤용희 環院81
△이득우 사대74 △이성호 GLP13
△이신재 ACPM9 △이용식 공대79
△이은재 농대85 △이태환 사회94
△장영원 공대66 △전택수 사대71
△조성문 경영84 △조현국 經院73
△진장수 법대86 △최해권 ACPM8
△최호식 AMFR30

〈일반〉 △강다현 FNP5
△강응선 상대67 △강환구 공대75
△게스티브 의대02 △고주환 ACPM6
△구혜경 사대88 △권봉일 공대69
△권오형 사회80 △권용준 HPM27
△권철원 사회03 △길장민 법대91
△김경수 미대91 △김광현 AMP55

△김구섭 공대77 △김균과 경영78
△김기학 상대55 △김대식 공대06
△김도곤 GLP9 △김동완 법대87
△김명수 치대66 △김범수 경영03
△김병구 IFP4 △김병준 치대70
△김선아 의대81 △김선아 경영06
△김성기 문리60 △김순모 FIP11
△김승택 공대09 △김신규 치대55
△김연표 농대51 △김영걸 의대83
△김영휘 공대55 △김용백 수의86
△김용분 음대58 △김재열 인문91
△김재평 AIC31 △김창종 ACPM2
△김태우 공대85 △김항래 수의91
△김형술 ACAD19 △김현수 공대82
△김형민 공대04 △김형석 의대00
△김혜성 법대96 △김효기 공대01
△남병희 ABKI4 △남호동 GLP20
△노선호 AMP24 △도재형 법대87
△류근관 사회79 △문영애 음대65
△문정현 농대99 △민만기 공대53
△박동철 공대67 △박두은 齒院10
△박병섭 FNP2 △박순태 의대65
△박연경 經院09 △박영우 공대80
△박재준 ASP4 △박종대 공대77
△박해주 상대55 △박현우 공대07
△박현진 사대09 △박형규 ABP20
△박흥식 자연82 △방수남 FNP5
△배정일 의대10 △배진호 농대07
△서일기 공대71 △성해경 경영93
△손다인 의대11 △손승완 공대03
△송동진 사회86 △송은영 미대09
△송이보라 사회03 △송임숙 사대55
△송재소 문리62 △송주훈 공대80
△신후성 상대55 △심소영 생활88
△안승홍 環院94 △안영모 ACPM2

△양혜숙 문리55 △양화승 공대04
△여정은 사회93 △오성삼 大院77
△오승철 AFB14 △오영석 공대88
△오윤규 의대88 △오현숙 생활68
△용태석 농대97 △원진희 공대48
△유길준 사대55 △유대영 인문94
△유세형 음대08 △유영훈 공대93
△유의택 공대05 △유정수 농대66
△윤병란 의대79 △윤성주 법대84
△윤순창 문리67 △이 욱 농대99
△이규석 농대09 △이동필 AWAS1
△이병일 공대94 △이병주 사대53
△이부경 농대50 △이상수 법대07
△이상식 AFP11 △이성중 자연87
△이세장 상대55 △이소정 미대08
△이신애 사대98 △이신호 FIP7
△이완우 수의64 △이장호 음대56
△이정일 사회82 △이종오 상대52
△이지호 미대07 △이한강 농대69
△이혜원 법대92 △이호영 AWAS1
△임래규 문리65 △임종현 공대04
△임준서 간호09 △장민성 자연07
△장승희 經院09 △전경수 문리67
△정근철 경영91 △정기현 음대06
△정병호 공대05 △정상열 공대72
△정욱진 약대96 △정은혜 사대02
△정재주 ALP19 △정재호 약대91
△정진빈 농대73 △조 흥 문리66
△조성제 ABKI4 △조성진 상대55
△조영갑 공대67 △조원기 AFB14
△조일권 자연83 △진정은 공대12
△최갑주 공대06 △최동진 사대76
△최병철 음대56 △최병휘 의대73
△최영호 자연86 △최은아 치대91
△최인현 HPM30 △최정숙 사대44

△한기현 공대81 △한승현 공대08
△한종희 공대90 △한진규 자유09
△한창열 AMP34 △함상우 공대80
△홍기중 공대87 △홍장희 공대65
△홍한움 자연04 △황보영춘 環院83
△황정정 공대59

이 사

◆인문대 △강창일71 △김덕출81
△김동철78 △김정호90 △김주현90
△박수현83 △손예철69 △오성민97
△윤상익81 △윤재인80 △정제문72
△정희영83 △조용일77 △조용호87
△한병희77
◆사회대 △곽대환81 △남기섭76
△박성희75 △박주태85 △서동영79
△성은식76 △유성열80 △이건희73
△이재덕73 △임주현79 △제민호82
△조영일77 △조현래73 △최금락76
△최익순73
◆자연대 △권철안77 △김규중72
△백병학72 △원유덕81 △윤용하84
△이창복68 △장대연74 △정 황72
△정철희75
◆간호대 △성송현74 △홍정희86
◆경영대 △김영기73 △김홍섭79
△신용삼73 △이상수73 △이영민83
△이호선75 △조표훈95 △황수연72
◆공대 △강남식73 △강명순40
△강상돈92 △고영주67 △공철규67
△구본현73 △구창용60 △김경배68
△김경화65 △김광욱62 △김광일81
△김남호70 △김범석92 △김병욱76
△김석주48 △김성언71 △김영신89

△김유항82 △김인동80 △김인상87
△김정인94 △김제영71 △김종의59
△김진근71 △남상률70 △남승윤82
△문화성53 △박의승73 △박인근75
△박인오83 △박준창47 △박찬빈60
△박호경69 △박효대76 △배영호63
△변영삼77 △손경업65 △송병륜05
△신성수72 △신훈철47 △심혜경53
△안기원70 △안재휴52 △여인선75
△여태승82 △오소환59 △우상룡72
△유승빈63 △이경신82 △이계환62
△이근명63 △이동욱82 △이동춘63
△이동희85 △이명호53 △이병락68
△이수남69 △이연주93 △이원도59
△이재홍72 △이정국62 △이종남73
△이창갑46 △이현석94 △이현순69
△이환범56 △임채용89 △정명식50
△정태식92 △정태영75 △정한모71
△지 순54 △최 연68 △최재열69
△최정욱49 △하규성76 △하준환51
△한영호69 △한재성79 △한정훈76
△현희현59 △홍광표54 △홍성완62
△황 철71 △황이선62
◆농대 △강대구79 △권명구68
△김남현74 △김승로01 △김시흥69
△김일봉68 △김준영84 △김탁현78
△김태영82 △나찬희73 △목진만02
△박수철82 △박형만75 △서기호60
△서병륜69 △송기덕55 △연장식84
△유 석59 △유병서59 △윤종철83
△윤희진63 △이기은83 △이영호65
△이윤호68 △임봉주65 △정창주53
△정해각55 △조선종84 △차성윤57
△최금석76 △홍동선56 △홍행홍62
△홍현주73
◆문리대 △강승림62 △곽영찬70
△권혁방65 △김규상57 △김대성61
△김상복57 △김상진71 △김옥남52
△김종하53 △남광성61 △박영원69
△방석기62 △방효선51 △변 형61
△신상우64 △신정웅61 △안승원68
△양철주59 △엄경일64 △오영일61
△유보일60 △이원영69 △이원홍52
△이재형65 △이정남51 △이충희54
△정 광62 △정구훈65 △정무호61
△조영수64 △차흥봉62 △하영식58
△홍두표55

서울대 동문 및 자녀분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모십니다.
(동문전용상담 02-3445-2445)



대표상담(무료)
1577-2050
www.noble.co.kr

서울대 동문 및 자녀분들을 위한 아름답고 품격있는 만남을 주선합니다.

엔노블은 High-Class를 위한
성혼전문 결혼정보회사로서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등 사회 리딩그룹을 위한
고품격 결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품격있는 만남을 통해
고귀한 당신의 평생의 인연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High-class Society
Matchmaking Agency

엔노블은 가장 신뢰받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국내 최고의 9개 명문대 총동창회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협력사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부산대, 인제대 의대,
고신대 의대, 아주대 의대
-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KBS TV가이드 추천 "BEST 결혼정보회사"
- 경향신문 유망브랜드대상, 모범기업인대상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수상

엔노블은 성혼을 제일 잘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성혼주의-수준높은 이성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성혼에 최적화된 회원제
- 3:1 책임관리-상담 매니저, 매칭 매니저, 서비스 지원팀의 삼위일체 관리
- 프로필 안심 보증제 - 프로필이 허위일 경우 최고 2억원 배상(책임보험)
- 부산직영지사 및 미국 4개 협력지사 운영 ■ VIP, 전문직 전담팀 운영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N 엔 노 블
결 혼 정 보 회 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서울본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0-16 상원빌딩 3-5층 부산지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4 센텀리더스마크 4006호

◆미대 △김선미88 △김연수70
△윤옥진64 △이진민83 △정병구66
△천진희76 △한형석91
◆법대 △강석훈82 △강재철77
△경우근67 △고흥달68 △구남수81
△권혁채60 △김권택63 △김동원52
△김두희58 △김득환79 △김성길60
△김승진57 △김승호62 △김연곤85
△김영일60 △김완섭65 △김용환60
△김윤기75 △김응열59 △김의환81
△김인겸82 △김정후57 △김종윤72
△김종일52 △김준규75 △김진우52
△김형선57 △명노승65 △문영길55
△박경보70 △박상기56 △박용상63
△박용석74 △박재경57 △박철근55
△박해봉83 △백덕열67 △서돈양56
△서정석65 △손기식68 △송경숙91
△송병대67 △송진훈59 △신규태56
△신정철52 △신현욱66 △심상철76
△심재갑52 △안경환66 △안병익88
△안영도65 △오시열75 △오연규76
△우의형66 △유남석76 △유영상81
△유재선63 △윤교중65 △윤덕순59
△윤동윤57 △윤성태61 △윤준원67
△이대우67 △이동득59 △이백규83
△이상배58 △이상우57 △이성웅61
△이영범59 △이영주58 △이진배65
△장창호63 △전응진49 △정대철62
△정덕장59 △정세용74 △정용인60
△정지형58 △정휘위62 △제차룡60
△조장혁90 △주석영79 △채 윤78

△최기정60 △최병덕72 △최상엽56
△최석원52 △최신석59 △최재훈49
△최종길83 △함영업57 △홍경용49
△홍성필89 △황병인54 △황보경석50
△황성일56 △황이연55 △황진구88
◆사대 △강봉근67 △고영신73
△구성희55 △국해웅63 △김상구60
△김수형61 △김영진51 △김유명69
△김종찬87 △김준한61 △김진규58
△김진원56 △김학천59 △박익두64
△박찬구56 △손영목60 △송재숙71
△신동철59 △신찬우48 △오장훈83
△온기수70 △유환욱78 △윤운섭61
△윤익모62 △윤재봉56 △이규석66
△이기준67 △이찬근74 △임찬희78
△임향순60 △정상윤74 △정응근63
△정준섭61 △조용복55 △최준명60
△홍철근70 △황승기69
◆상대 △고두모57 △곽윤광60
△권혁승53 △권희택56 △김기중57
△김중석65 △김형만52 △나길웅61
△남정우60 △문영도50 △민형동71
△박영조61 △박진화55 △배경일69
△백정기71 △서정도66 △손희근46
△신평재57 △엄수명61 △오강욱56
△우순규53 △우완식57 △유석홍61
△윤종현44 △이세근63 △이인덕67
△이철희57 △이태형59 △이태환58
△장덕신71 △전창수57 △정 용61
△조중현62 △최명규46 △최부완54
△표계영58

◆생활대 △김윤정93 △김정주56
△엄윤경78 △우경자61 △윤혜원82
△이은화75
◆수의대 △김남식83 △김택수55
△김휘석72 △박전교74 △박희준66
△백오섭58 △송치용83 △신대섭56
△신현덕80 △오화균88 △이 준62
△최윤주90
◆약대 △강석진55 △김 유60
△김광순59 △김미혜87 △김상조54
△김선중61 △김영택58 △김우영67
△김진훈71 △김효중71 △맹호영81
△문원호65 △박시우69 △신화범50
△심규장70 △우재성71 △유태숙72
△윤승모56 △이가평60 △정연진69
△차기현59
◆음대 △강덕원69 △김금수76
△김상원87 △만미란73 △서윤진94
△오미혜71 △이용일57 △이재숙59
△이한돈65 △최승준65 △홍지영83
△황영기82
◆의대 △고종현74 △고행일64
△김광희55 △김기탁68 △김명석62
△김병천66 △김종숙77 △김진조45
△김찬영46 △김창석85 △김한수82
△김현우64 △김환규78 △남상민85
△노문진90 △문성무60 △박동현70
△박성근89 △박영태70 △방성호66
△손봉기73 △송영주74 △신종근87
△신주호81 △심웅석59 △양성범75
△양솔문90 △양승열51 △양승오75

△유성렬71 △유왕성75 △유대연54
△윤광선68 △윤용범66 △이기주85
△이의돈61 △이종석79 △이충원76
△이태연90 △장수진06 △장운석49
△정명관91 △정범영94 △주영수84
△지삼봉55 △최경진68 △최동수54
△황순욱72
◆치대 △강민섭81 △구창서58
△권오양74 △김규진64 △김병찬69
△김윤영58 △김진홍78 △김채종68
△김휘철70 △남용욱51 △류홍렬77
△박연천72 △박행운56 △백경동86
△백성기71 △부삼환58 △송영호57
△신동인76 △신일규65 △오세웅90
△우원희73 △윤임도72 △이경우71
△이용오56 △이장훈57 △이진결77
△이청룡70 △임성수60 △임종호82
△정관서79 △정상일91
◆대학원 △가순일94 △강경규81
△고진석99 △권병남81 △김병주85
△박재환81 △배명진83 △서수원89
△손정모83 △송강영91 △신호수85
△윤경섭89 △윤용훈97 △이시운81
△하두봉56
△양승현71
◆경대원 △권혁찬75 △박종안72
△윤지선04 △이규환63
◆신대원 △김태문71 △김희욱76
◆행대원 △신순우74 △염준호12
△이영태72 △이주석84 △정시영93
△정창훈05
△정병한69
◆AMP △고윤재20 △공희식72
△권용관58 △김건중38 △김봉규20
△김수환15 △김주한50 △김진찬43
△김혜삼51 △김홍래36 △노연웅48
△민경서48 △민명술42 △서상노73
△유병운23 △유시수25 △윤종호48
△이대영67 △이수중26 △이태섭05
△이현규52 △임성규73 △장영준62
△전용배57 △전현찬44 △전용택31
△최종욱15 △최호경28 △한종희28
△황복현45 △황종갑56
◆AIP △고희수25 △김대원48
△김석환30 △김성화46 △김성환43
△김학규26 △노원구18 △문일권39
△신용기9 △심영복38 △윤백중4
△이상희15 △전종윤10 △정봉성29
◆ACAD △강남주56 △고세일32
△김경래18 △김광철47 △김우연14
△김종식60 △김창식45 △김태완44
△김태환38 △노재우16 △박남신70
△박성득20 △방동식27 △배운도54
△신대용73 △안희수11 △유재필23
△이종식73 △장기윤72 △전병순42
△전영배5 △정동우6 △최수근51
△황상모66
◆ABP △강구현35 △김수동32
△김현식20 △이상락4 △이수연23
△이관철3
◆SGS △강중원20 △김종호4
△송두영22 △안기석10 △이창섭7
△최호운18
◆APC △권상태10 △하정호8
△함춘조2
◆CHCN △문순자11
◆HPM △김광화9 △김중곤16
△김홍구12 △방금석2 △배영봉14
△사재훈20 △손규호11 △안영미28
△이상완11 △이재우23 △이충섭8
△정성민28 △최봉영22 △최창욱14

△하경호27 △하우형29 △황경수23
◆AMPP △남정명1 △류귀식7
△이경재6
◆AIC △김영식29 △김현식2
△박 훈12 △박종렬3 △박재현4
△이경의5 △장낙진13 △조정구8
△최유섭11 △최인환34
◆AFB △김병관12 △이영두9
△정일진10
◆AMPFRI △유영기23 △이춘희9
△이태갑14
◆ACMP △김수용7 △두강현10
△민평기4 △이종명9
◆FIP △양태운4 △이인화5
△황기봉1
◆GLP △구윤관27 △금상연19
△오범석20 △이기호26 △최진철18
◆ALP △김민석16 △이승림11
◆SPARC △권세원16 △백인호18
△석종호19 △손정우15 △황용규15
◆AFP △김창목9 △박희석9
△이창식6 △이호철12 △정일채8
◆ASP △성순경10
◆IFP △김옥희4 △노일호9
△이승득1
◆BCP △박상원10 △지용한10
◆ABKI △김진목1 △김진학2
△이현성1

일 반

◆인문대 △김 영88 △김대환81
△김대환84 △김민지01 △김성환06
△김준연07 △김현동04 △문병우87
△방문규81 △석제범81 △신남경87
△안연희92 △염해정72 △윤철매07
△이동건91 △이용운00 △이우열04
△이주영05 △이흥근71 △조형동84
△최완석98 △홍범식83 △황성태90
◆사회대 △구갑문74 △김병규05
△김봉주82 △김성철88 △김유림09
△김일권09 △김철수72 △김현균03
△류규현84 △문 철11 △문지혜06
△문홍성82 △박원재83 △손근수83
△손신명78 △신현기90 △양갑용95
△오세인07 △유연정07 △유지석03
△윤지영07 △이근태87 △이석홍82
△이승훈02 △이용호88 △임종희05
△장재민07 △장진우88 △전재호95
△정주성03 △조 민90 △주 리83
△최병철93 △함보현95 △황선웅72
◆자연대 △김 훈10 △김두현90
△김세윤12 △김용주01 △김윤호02
△김지구07 △김지예78 △김현주09
△노정현04 △노진철89 △노혜림80
△박응식79 △박지윤06 △손준익94
△신재혁07 △신지윤10 △양중섭83
△양희웅92 △유병수77 △유세한98
△이규현79 △이동영01 △이병홍66
△이상철81 △이상휘03 △이선주09
△이준기09 △이한이87 △이호성81
△임경수06 △임병호05 △임태순79
△임호빈10 △장원석96 △장종만72
△전희진02 △정동근84 △정주영84
△정태능73 △주영길88 △채현우07
△홍순태78 △황웅린81
◆간호대 △권오겸56 △김시정95
△김채숙66 △김희자69 △박문희59
△박현자63 △이선주81 △이아영81
△이창우55 △장문호09 △장예환58
△조결자62 △조익준04 △최영희65



사람을 제일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 인터비즈시스템

스물여섯 인터비즈 뜨거운 젊음으로 도약하다!

SINCE 1989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잇는 인재관리전문기업 인터비즈가 창립 26주년을 맞았습니다.
젊은 청년의 패기와 열정으로 대한민국 비즈니스의 새 역사를 열겠습니다.



HR Outsourcing

근로자파견

취업지원서비스

Head Hunting

통·번역서비스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웃소싱 전문기업 - 인터비즈시스템 www.inter-biz.co.kr

(주)인터비즈시스템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6층(여의도동) 본사(관리) 02-799-7900 (영업)02-799-7979

△태영숙⑦

◆경영대 △강두끝⑧⑤ △고두형⑩①
△고희라⑨⑨ △김상윤⑩② △김선호⑧①
△김원규⑦⑧ △김형태⑤⑤ △박 준⑧③
△박근희⑥⑥ △박세환⑧⑤ △배수현⑧⑨
△배종우④④ △서학수⑧② △신윤철⑦⑦
△양진호⑧⑨ △양한규⑨④ △윤석진⑨⑨
△이나생⑨⑨ △이매리⑨⑨ △이재우⑨②
△임정오⑥⑥ △허승호⑧② △홍현기⑧②
◆공대 △강신구⑤③ △강영식⑥④
△강영택⑥③ △강용규⑤② △강춘식⑤⑤
△고근희⑤④ △고순민⑨⑧ △고재현⑩③
△고정환⑧⑧ △고항규⑥⑧ △고현성⑧⑤
△곽덕훈⑥⑨ △곽두영⑤⑤ △곽민정⑩①
△곽우섭⑨⑦ △구영호⑦② △권 철⑥⑤
△권기정⑥⑦ △권영하⑥④ △권지연⑩⑩
△금동인⑧⑧ △김 철⑤⑧ △김경민⑩②
△김경은⑨⑤ △김경학⑦② △김광일⑩⑩
△김규남④⑦ △김기엽⑦⑦ △김남길⑥①
△김대성⑧⑦ △김대웅⑤② △김탁성⑤④
△김병준⑩③ △김병훈⑨⑧ △김생빈⑤④
△김영환⑤⑥ △김용익⑤⑩ △김용태⑤③
△김유간⑧⑥ △김윤제⑥② △김의석⑧④
△김인용⑦④ △김일두⑥⑥ △김재경⑨⑦
△김재현⑧⑦ △김정우⑤⑥ △김재욱⑦③
△김종인⑥⑧ △김종한⑥① △김종호⑦②
△김주하⑩① △김주호⑤⑤ △김찬식⑧③
△김창현⑥③ △김철구⑥⑤ △김태경⑧⑨
△김태영⑦④ △김학수⑧② △김학준⑩②
△김형규⑩⑩ △김형백⑦⑤ △김형전⑤②
△김홍만⑧⑨ △노홍조④⑧ △노환영⑤⑥
△류성룡⑨① △문동민⑤⑦ △문종규⑤⑧
△문형석⑩③ △문혜진⑩① △박규식⑨①
△박기태⑨① △박영규⑤⑧ △박영순⑤④
△박영우⑧⑩ △박용기⑦① △박용성⑨⑤
△박원구⑦③ △박의남④⑨ △박이관⑤⑧
△박이윤⑦② △박일재⑦⑧ △박종규⑥⑧
△박종태⑥① △박지빈⑨③ △박지형⑩③
△박철림⑤⑨ △빈병문⑦④ △배승환⑤④
△배정희⑥② △배준일⑨⑧ △백선욱⑥②
△변정근⑤② △성운준⑩⑤ △성정환⑩⑨
△성준호⑩④ △성호용⑩③ △손계욱⑦⑦
△손무익⑥⑧ △송기선⑩③ △송수영⑤①
△송슬지⑩⑤ △송영찬⑥⑥ △송재혁⑧⑦
△송주인⑤① △신건학⑤⑥ △신상호⑤④
△심용기⑤③ △심재한⑤③ △안규홍⑦②
△안석기⑩③ △안재혁⑩⑨ △안준영⑤②
△양정훈⑩② △양창국⑥⑩ △양희진⑩②
△엄태석⑥⑤ △오승용⑩⑤ △오승환⑨⑦
△유무웅⑤⑧ △유인섭⑨① △유현우⑩⑩
△유홍식⑤③ △육내승⑤① △윤남진⑤③
△윤상철⑤① △윤혁준⑧⑥ △이 석④⑦
△이갑표④⑧ △이강우⑥① △이경재⑩⑩
△이경태⑤③ △이기영⑩③ △이길형⑥⑨
△이미지⑩③ △이민정⑩⑦ △이봉희⑦③
△이상경⑥⑧ △이상순⑥⑦ △이석규⑤⑦
△이석주⑤⑦ △이성배⑦④ △이성실⑤①
△이승무⑥① △이승욱⑤⑥ △이영창⑧⑦
△이우주⑨⑨ △이원복⑤⑩ △이응선⑤③
△이인희⑤⑥ △이재남⑤⑦ △이재범⑩①
△이재준⑩③ △이재환⑩⑥ △이재희⑩⑨
△이정준⑩① △이종수⑥⑤ △이종천⑧⑥
△이지수⑦⑦ △이지환⑩④ △이진혁⑩④
△이창민⑩② △이창주⑨⑦ △이태종⑦⑦
△이화기⑦③ △이화용⑦⑦ △이효준⑩⑧
△임동조⑦① △임용택⑤⑤ △임현용⑥⑨
△임흥준⑧⑥ △장덕현⑧② △장동근⑤⑤
△장호영⑧① △전경우⑩⑩ △전광병⑦④
△전광환⑥⑥ △전상수⑦② △전연욱⑤⑦
△전의진⑥⑤ △정 권⑦③ △정건식⑤⑤
△정근영⑧⑤ △정동학⑦⑤ △정동혁⑩⑩

△정명진⑩④ △정민철⑩⑧ △정민하⑨①
△정봉주⑧② △정상진⑥⑧ △정수근⑧④
△정수완⑨⑤ △정승교⑩⑦ △정의석⑧⑤
△정재관⑤⑦ △정진경④⑧ △정해철⑤⑨
△조 만⑤⑥ △조사홍⑤⑥ △조응현⑤⑥
△조장대⑥⑩ △조정호⑥⑤ △조종현④⑥
△주정민⑨④ △지석배⑨③ △진조철⑦⑥
△차석배⑥③ △채수창⑥② △최기혁⑧④
△최동진⑧① △최석주⑤① △최석훈⑩⑨
△최신영⑩⑧ △최영태⑦⑦ △최왕돈⑧⑩
△최우석⑨⑤ △최정림⑤③ △최종민⑩①
△최종식⑧② △최효병⑤⑨ △표태원⑦④
△하상달⑥⑦ △하상모⑨⑧ △하태권⑩⑥
△한광석⑥⑥ △한방교⑤⑤ △한상명⑦⑧
△한충수⑨⑧ △한현선⑨⑦ △한현철⑩⑤
△한현호⑦① △현익환⑧② △홍성목⑤④
△홍성범⑤⑥ △홍진표⑤⑨ △황금영⑧②
△황남웅⑩① △황병학⑩⑨ △황영하⑩⑩
△황정현⑤⑥
◆농대 △강광희⑤⑦ △강신표⑤⑤
△강원우⑥⑩ △공민영⑩⑤ △구대훈⑧⑨
△권 혁⑩② △권혁세⑤④ △김기철⑨⑩
△김두만⑤② △김명호⑦⑦ △김삼식⑤③
△김상현⑦⑤ △김원문⑥⑦ △김이기⑧⑩
△김인철⑩① △김재동⑦⑧ △김재웅⑤⑨
△김재철⑦⑦ △김재홍⑤⑦ △김정기⑤⑥
△김진철⑤① △김학규⑦⑦ △김학기⑥⑤
△김한규⑥④ △김한주⑧⑦ △김현용⑨②
△노재홍⑤⑥ △노홍섭⑤③ △류성근⑥③
△류충렬⑦④ △민두식⑤④ △민영준④⑧
△박 호⑤⑨ △박남중⑤④ △박상범⑩②
△박상홍⑤⑤ △박숙규④⑧ △박승걸⑤③
△박양문⑤⑤ △박용진⑧⑤ △박종국⑤⑦
△박종대⑦⑥ △박준관⑩④ △박치석⑥③
△박형훈⑤⑤ △석창건⑩① △소병상⑦④
△손성호⑤⑧ △송기언⑤⑤ △송기환⑧⑥
△송삼석⑤③ △송종익⑤⑤ △신건성⑥②
△심재욱⑤③ △심재철⑤⑦ △안옥선⑧⑦
△양국현⑨⑥ △엄재훈⑦⑦ △엄태영⑤③
△오근배⑤⑥ △오수영⑤⑨ △오영택⑧⑦
△오완수⑤⑩ △오흥석⑤⑩ △우정식⑤③
△우장명⑥⑥ △유근영⑤④ △유병윤⑤④
△유성구⑩⑨ △윤동면⑥⑤ △윤병선⑦⑧
△윤인화⑤⑤ △이건우⑤② △이계은⑤⑤
△이기순⑥⑨ △이덕림⑤⑧ △이도천⑤⑤
△이두황⑦⑤ △이병규⑤③ △이병근⑥⑦
△이병전⑤⑤ △이병하⑤⑤ △이병훈⑤⑧
△이상욱⑤⑥ △이상원⑩⑦ △이영진⑩⑥
△이용남⑥① △이우인⑦⑧ △이원종⑦③
△이인호⑤③ △이전학⑥⑩ △이종구⑤③
△이준교⑧⑦ △이중훈④⑧ △이창규⑧⑤
△이태윤⑩③ △이현우⑤① △이홍석⑤②
△임무상⑤⑨ △임용섭⑧⑦ △장낙연⑤⑤
△장운용⑤① △장인관⑧① △장철원⑩⑦
△전성익⑤⑤ △전영수⑥② △정관모⑤④
△정구현⑤③ △정동성⑤⑦ △정민현⑤⑤
△정승우⑩② △정진빈⑦③ △정진욱⑤⑥
△정진훈⑧⑦ △조안부⑤⑤ △조한욱⑤③
△차영준⑤① △채수근⑦④ △천정하⑤④
△최근화⑩⑦ △최동열⑤⑩ △최동인⑦⑤
△최상수⑥③ △최영대⑨⑤ △최은순⑦⑧
△하유미⑧④ △하재명⑧⑩ △한광희⑤⑤
△한상룡⑤⑧ △한상복⑤④ △한중희⑤⑦
△한춘연⑤② △황규만④⑨ △황용진⑤⑥
◆문리대 △강낙중⑤⑥ △강명승⑤⑨
△강신성⑤⑤ △강영원⑦⑦ △고석진⑤⑦
△고혜령⑥④ △곽광수⑤⑨ △권의식⑥⑦
△김경환⑥⑤ △김계란⑤② △김기근⑥⑨
△김동진⑥② △김명수⑤④ △김석산⑤⑧
△김순섭⑤⑦ △김영소⑥⑥ △김영웅⑥③
△김옥민⑤① △김용관⑤⑩ △김용웅⑥④

△김일송⑥③ △김정기⑥③ △김정택⑥⑩
△김중하⑤⑦ △김진석⑤⑨ △김철용⑤④
△김태욱⑤⑧ △김택근⑥⑨ △김형련⑥⑥
△김호철⑥⑧ △김흥수⑤⑦ △나학진④⑧
△도태균⑥③ △문영모⑥⑩ △박관운⑤⑥
△박대영⑥⑩ △박대일⑥① △박상기⑦①
△박애주④⑦ △박영기⑤⑧ △박재만⑤④
△박종민⑤④ △박창고⑤⑨ △백병기⑥⑩
△백영근⑤⑤ △서민석⑤③ △서병철⑤⑨
△서정태⑤⑤ △서창모⑥① △성명제⑤④
△성병욱⑤⑦ △송길상④⑧ △송인찬⑤⑨
△신장효⑤⑨ △심사수⑤④ △안삼환⑥②
△염태호⑤⑨ △오재규⑤② △우창웅⑤②
△원인기⑥⑥ △유병길⑥⑧ △윤석대⑥①
△윤하정④⑦ △이규증⑤⑤ △이근택⑥⑥
△이동희⑤⑤ △이문구⑤⑨ △이수호④⑨
△이승만⑥② △이시종⑥⑦ △이영식⑤①
△이우봉⑥⑨ △이원희⑤⑤ △이인수⑥③
△이재승⑤⑨ △이종인⑤④ △이진희⑤④
△이해정④⑧ △임한순⑤⑦ △장화순⑤⑩
△정 탁⑤⑨ △정 탄⑥⑤ △정국록⑦①
△정기호⑤⑩ △정삼윤⑥④ △정서웅⑥②
△정태훈⑤③ △정해웅④⑨ △조성술⑤③
△조호래⑤⑨ △주혜경⑥⑧ △차상철⑥⑤
△차효인⑥① △최 홍⑥⑥ △최남준⑤⑥
△최병권⑥③ △현영욱⑥⑦ △홍순호⑤⑦
△황의박⑥③
◆미대 △권연희⑨⑥ △권은솔⑩⑨
△길호관⑦④ △김민정⑩① △김영자⑥③
△김지현⑩⑩ △김충경⑤④ △박연도⑤⑥
△박종규⑥⑨ △서주희⑧⑨ △손복희⑥⑦

△안유신⑨⑧ △안종문⑥⑩ △오병인⑤⑦
△이재호⑩④ △이주현⑩⑧ △이회영⑩⑧
△전지윤⑧⑥ △조 윤⑤⑨ △홍순무⑤④
◆법대 △강기철④⑧ △강병연⑤⑦
△강형춘⑤④ △고명윤⑤④ △구지순⑤③
△김 철⑧③ △김각연⑧④ △김광주⑥②
△김광현⑤④ △김국진⑥⑩ △김기수⑤⑧
△김길영⑤① △김남식⑤⑦ △김명종⑥①
△김상욱⑥⑨ △김성룡⑥⑩ △김소영⑩⑦
△김수홍⑨⑦ △김양일⑥① △김영근⑤②
△김용현⑦④ △김용환⑤② △김윤상⑧⑧
△김윤철④⑧ △김운택⑤⑥ △김재규④⑨
△김정유⑧④ △김주목⑤⑦ △김준섭⑩④
△김현민⑥① △노경국⑩② △노동표⑧⑩
△노명준⑤⑦ △류재신④⑧ △류준형⑤①
△박 번⑥⑩ △박상현⑤⑦ △박세철⑤①
△박영하⑦① △박인환⑤① △박종성⑦③
△박진수⑩⑧ △박창훈⑦⑧ △박천서⑤⑥
△박청석⑥② △박홍식⑤⑤ △방영민⑦⑧
△배찬린⑤⑧ △백세웅⑥④ △성순경⑤④
△손석주⑤⑤ △송경호④⑨ △신 신⑤⑤
△심연택⑦① △안기영③⑥ △안남규⑤⑩
△안익환⑨② △안재식⑤⑦ △오동석⑧④
△윤일영⑤② △윤종수⑤③ △이백수⑤④
△이상근⑦④ △이상택⑤⑨ △이상철⑦⑨
△이상갑⑤⑤ △이순복⑤④ △이승환⑤⑤
△이용관⑨⑨ △이용웅⑥⑤ △이종신⑥③
△이종환⑤⑨ △이춘식⑤② △이태영⑥⑩
△이한춘⑤③ △임순목⑤③ △임승언⑤⑥
△장 호⑥⑦ △장재연⑧② △장재익⑨⑧
△장종희⑩⑥ △장지용⑨⑦ △전제균⑩⑥

△정동현⑨⑨ △정만조⑤⑤ △정우채⑩⑧
△정종국⑩⑩ △정종현⑥⑩ △정지태⑤⑧
△정혜경⑩③ △조병직④⑥ △조용환⑦⑨
△조인호⑦⑦ △최세윤⑩① △최영룡⑦⑧
△최형준⑤① △한광수⑥⑤ △한용기⑥②
△허 균④⑨ △홍기인⑤⑤ △황선무⑤⑧
△황영욱⑤⑨
◆사대 △강길선⑤⑦ △강호철⑥⑨
△고무송⑤⑨ △고병철⑥① △고준식⑤①
△권순철⑥⑨ △권정순⑤⑨ △권혁봉④⑨
△김경철⑥⑩ △김광수⑦⑦ △김광운⑦③
△김광준⑥③ △김규형⑤④ △김다림⑤⑤
△김미정⑧③ △김봉민⑤③ △김상수⑤⑦
△김상현⑩⑦ △김순신⑤① △김우탁⑤⑦
△김원석⑤⑥ △김윤수⑤⑨ △김은과⑤⑦
△김종두⑩⑦ △김준호⑤⑩ △김혜우⑥④
△나병삼⑥④ △노두호⑤① △노정원⑩⑧
△박갑순⑤② △박성민⑦⑦ △박양수⑤⑥
△박영목⑤⑥ △박영배⑤④ △박영숙④①
△박윤건⑤⑨ △박장순⑤② △박재근⑦⑨
△박종근⑥⑩ △박종삼⑤⑨ △박종서⑤⑦
△박종식⑦④ △박지수⑤① △박지영⑩⑦
△박현진⑩⑨ △백성준⑦⑧ △손욱호⑦②
△손종국⑤⑤ △신동순⑤③ △신문섭⑥⑩
△신미영⑦③ △신정숙⑥⑦ △신철지⑥⑩
△안석로⑤③ △안종만⑤③ △양덕배⑥①
△오경자⑤② △오진경③⑧ △우명길⑥⑧
△유민영⑤⑦ △유상주⑤⑧ △유성렬⑥④
△유양선⑤⑥ △유오진⑤⑧ △유의식⑦①
△윤기정⑦⑤ △윤백중⑤⑤ △이광열⑤⑥
△이광용⑥① △이기중⑤⑥ △이기충⑤⑤



TAKE OUT
G1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아식스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이 성 호(무역학과 73인)
www.asics.com

△이동주87 △이명옥57 △이범훈47
△이상경65 △이상교61 △이상욱51
△이성호58 △이순권61 △이승립66
△이시정54 △이시훈57 △이영주56
△이용철80 △이재근43 △이재선01
△이종명54 △이종숙43 △이종순52
△이진영51 △이현규62 △이호상57
△임상순60 △임학수69 △전기채51
△전종태75 △전학수65 △정상기63
△정은숙57 △정은호59 △정재도82
△정후호61 △정현재09 △정호경52
△제욱예33 △조민식55 △조성호75
△조시영85 △조연희58 △조현철92
△최두영78 △최병호57 △최연수11
△최영춘57 △최윤경83 △최정현64
△최현규07 △최현실87 △추연화62
△하민전50 △하병권53 △하영준56
△한인영08 △한재용55 △한정림59
△함희동46 △허은수86 △홍종봉54
△황광수56 △황권오71 △황득우96
△황세열49 △황적륜54
◆상대 △강경만54 △강승규65
△곽 규51 △곽영홍57 △구의일61
△김동휘48 △김범수57 △김병기54
△김상경61 △김상열64 △김상태62
△김승경55 △김연조56 △김윤기59
△김재진54 △김정수56 △김정웅60
△김정환60 △김제심51 △김종창55
△김진주60 △김진화58 △나웅배53
△문무상54 △문학모58 △민병태58
△박경석53 △박광규56 △박대룡50
△박대평55 △박봉흠68 △박종현49
△배진성58 △백지곤49 △서재진60
△손경수56 △손흥규51 △송주식46
△심남진49 △안기봉55 △안형욱66
△양재욱53 △염재현65 △오맹선53
△오장환54 △우상섭53 △유근성66
△유명희57 △유방창61 △유병무64
△윤기현52 △윤여훈67 △윤호중52
△이경모52 △이동원51 △이병국52
△이성위61 △이영상51 △이재등57
△이종렬49 △이종수64 △이창숙57
△이창준53 △이필원60 △이흥근70
△인수환54 △임창무53 △전완식60
△전장원56 △정세진53 △정연덕50
△정재두53 △정재창58 △조관호56
△조성일62 △조현문58 △채규원51

△채수환56 △최동호65 △최철현53
△한영국50 △허 길52 △허 석59
△홍성표59 △홍순대55 △홍용찬64
△황규백63
◆생활대 △김경숙82 △김남미73
△김보람98 △김유진05 △김은정08
△문혜정92 △박문학60 △서병숙55
△안영희57 △윤승건05 △이아름05
△이영자65 △이지현04 △정경명77
△조정자61
◆수의대 △고의식56 △김배원60
△김점수84 △노병의61 △박내정63
△박만택52 △박신규61 △박현기58
△배동희86 △신문규56 △양재만91
△여중원65 △오남진67 △오소민81
△윤석정61 △이경환60 △이민규72
△이생근78 △이학범06 △이형우51
△임정수64 △전원표56 △정용면53
△정윤섭55 △정진화52 △최영식61
△최찬영66 △홍두표55 △홍순국54
◆약대 △김규상56 △강삼식65
△강석훈04 △공영석57 △권창호47
△김삼영58 △김양오60 △김일성60
△김정화57 △김희중59 △노일협45
△문창기52 △박문기47 △박지인00
△박창서67 △배종철69 △서정훈06
△송순자60 △유도봉66 △이만재56
△이문형47 △이미경85 △이상구58
△이상호66 △이석구62 △이애영56
△이우영71 △이원재53 △이재은55
△이재현77 △이재호72 △이해정46
△장봉수61 △정상철52 △조승희87
△조철원57 △지상구54 △체계화51
△최경인07 △최수안04 △최혜정86
△허명권69 △홍순태67 △홍욱선55
△황의성61
◆음대 △기영호88 △김영희53
△김은경86 △문혜신94 △송영욱80
△신혜주75 △안형일53 △이동민09
△이숙영80 △이영민01 △이정현97
△정혜연02 △조은솔10 △주인혜10
△최예니07 △하내인58 △홍성림01
△황인영09
◆의대 △강성구88 △강진화80
△권영길47 △김내준49 △김선민00
△김성국74 △김영태65 △김용진69
△김원희56 △김진국52 △김현경99

△김홍균54 △남궁견67 △박남진71
△박지명06 △박홍용80 △배진선58
△백낙형54 △변중훈69 △송익훈45
△신명희56 △신성우47 △오경균63
△오승하79 △웅상길58 △유종근71
△유형록57 △이 희68 △이강현74
△이동욱09 △이승원97 △이언복52
△이원기56 △이은혜74 △이재식81
△이제룡50 △이진오58 △이희발59
△장선택46 △장주현02 △전동수44
△정진우45 △정태산53 △정항보81
△조병주46 △조승현45 △주원식76
△주정화52 △주진순43 △한정규98
△황효섭58
◆치대 △강인희77 △강정욱83
△김기수78 △김기완56 △김기홍75
△김상세60 △김시영00 △김언형93
△김원경82 △박승오62 △백유선69
△서상주56 △손호현70 △용도택67
△이교인65 △이규철58 △이병윤53
△이상선81 △이양구57 △전영섭60
△전훈식59 △정철표74 △조한준53
△주리아04 △주성원10 △하국봉81
△한건웅61 △홍현종82
◆대학원 △곽영세86 △구자전64
△김기용83 △김동선56 △김완구95
△김재웅74 △김재호77 △김주혜91
△김홍석74 △류병관89 △박영수94
△양덕권91 △조일구94 △최연희83
△한성수80
◆MBA △고인준11 △김동일10
△남상진11 △홍성민06
◆경대원 △고창석71 △박정수93
△최갑석72
◆교대원 △김성기94 △김언명70
△이상길70 △정월용73
◆보대원 △김윤주89 △김종만62
△남순주80 △박주홍86 △반정욱60
△송경섭69 △신학균60 △오병근88
△오세민67 △오애리09 △이민희74
△하태경08 △황금복76
◆사대원 △김준열63 △전도영68
◆의대원 △송진화09
◆행대원 △강인준71 △고충삼63
△김선순12 △김성기76 △김하근71
△김희동78 △노선호68 △박찬도64
△서일수67 △신지현08 △유섿별07

△임세환71 △전상우10 △정성태11
△조규규87 △최종술75 △황원섭73
◆현대원 △강은순74 △김경대83
△김유일76 △김은아01 △노재원85
△박은혜08 △안승훈94 △이춘택71
◆AMP △가갑순18 △강은채44
△곽병구17 △김배호52 △김병두24
△김선홍14 △김영훈49 △김용범30
△김우전7 △김정규24 △김준화18
△김중성39 △김치근7 △나익수38
△노기종34 △박병역20 △박영근17
△박중서11 △박찬열40 △백문현25
△서철봉33 △안운수74 △안치한31
△오연수4 △유상국39 △윤동균46
△이성철12 △이시용31 △이영태35
△이종철10 △장남진48 △장지학77
△정일기35 △정재성7 △조대현58
△최병택6 △최영석11 △최인호12
◆AIP △구교근20 △구왕현12
△김 희2 △김순택6 △문병수49
△박승남51 △박영욱15 △박인서12
△서영애50 △신상열36 △염성도50
△유준종14 △이종기5 △장일재3
△조원동49 △차정웅18 △최평욱7
△황기인10
◆ACAD △김기봉50 △김덕영18
△김부근31 △김상렬58 △김종욱76
△김진섭38 △김행복27 △남희진76
△문동신55 △박민준40 △성경순29
△신정수12 △안신환34 △안진희78
△유병국30 △윤동희78 △이교용40
△이은홍48 △전영채23 △정도정71
△조남조15 △조옥식16 △진인권28
△최병인31 △최창관66 △홍성철77
◆ABP △김규대22 △이종우41
△황세영37
◆SGS △김홍렬15 △전대호30
△정해순3
◆APC △류승현19 △박응규20
△손일근3 △이동백15 △이종대20
△정락진10 △황수경8
◆CHCN △김미야9 △정경란8
◆HPM △김병민25 △김일용6
△김현호32 △송선열32 △이정현9
△이주국2 △정용기31 △한상부30
△홍의표9
◆AMPP △고영수10 △김천호15

△원주연14
◆AIC △김달석25 △김동구13
△윤영기2 △이현태21 △최 성11
◆AFB △김명중10 △김형일14
△박만영11 △신일호14 △이준욱14
△허 훈12
◆AMPFRI △강순이32 △김정주2
△김진수7 △문성호32 △박상현32
△신도범7 △우재만32 △추신교32
△한권우29
◆ACPMP △김권식11 △김동만11
△김성현11 △송현수11 △신동협11
△안영모2 △오인환9 △우경섭3
△이선근11 △전영철1 △정기창11
◆FIP △김성모7
◆GLP △김태형9 △김태화11
△박욱영14 △정인태11 △정학섭15
△최만중12
◆ALP △곽상욱12 △노연길10
△안재근8 △장일석4 △차원진3
◆SPARC △구재홍9 △김영석5
△박진숙9
◆AFP △김건섭13 △서영욱13
△신상문14 △조운자13
◆ASP △김영복23 △송희원10
△염조일15 △이 범18 △이찬근23
△정인상27
◆IFP △이유희11
◆ABKI △김상문5 △류영철5
△문철상5 △송수현5 △신재석5
△오경임5 △오상영5 △이덕원5
△이완중5 △이정식5 △이진근3
△정운영4 △한한대5
◆KFL △문광자13 △박경미17
△박영빈18 △최승훈7
◆FNP △김인규6 △박공영4
△양광준3 △임재원6 △장민준6
◆AWASB △권태규2 △김강산2
△변진수2 △석재수1 △성열상2
△이종후2 △정재호2 △최형인2

2015년 3월	
연 회 비	91,740,000
평생회비	58,300,000
입 회 비	300,000
계	150,340,000
2015년 누계	398,570,000

제품 생산을 위해 얼마나 많은 부품들을 사용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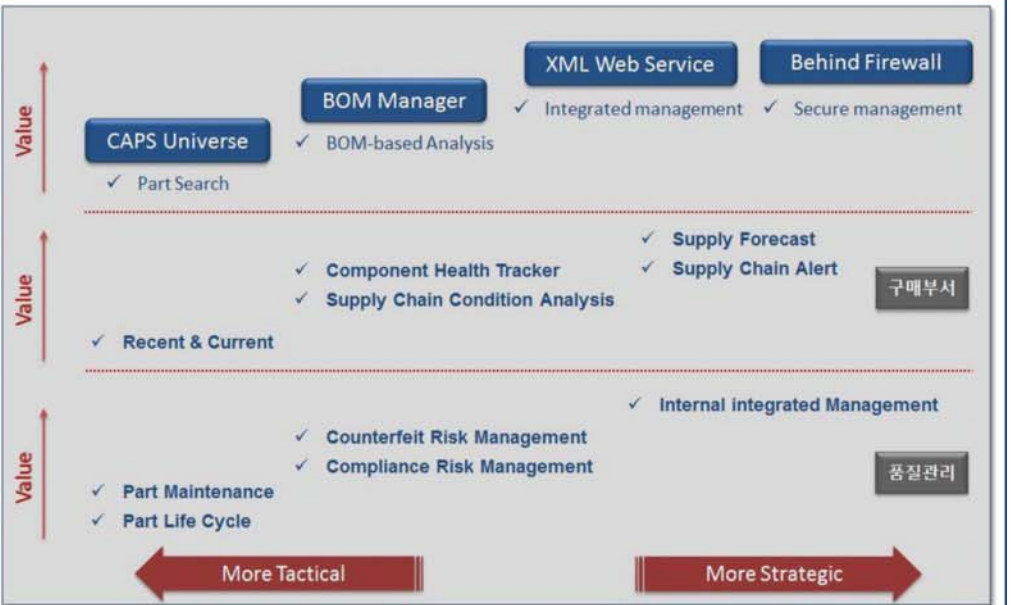
부품들의 변경 사항들, 수급 현황, 대체 가능 부품들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수출 지역의 환경 규제를 비롯한 원자재 규제, 수출 금지품목 등 각종 규제들은 어떻게 준수하고 계십니까?

위조 부품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위 사항들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길 원하십니까?

여기 4억 4천만 개 이상의 세계 최대 전자 부품 DB를 갖춘 여러 해결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IHS Parts Management Solutions

Information Resources and Tools for the life of Your Products



키티스産學研情報(株)
KITIS Info. & Co., Ltd

<http://www.kitis.co.kr> TEL. 02-3474-5290(代)

Authorized Dealer in Korea

대표 홍영표 (국제대학원 GLP 21기)

Energy Transfer Solution Provider **HIGEN MOTOR**

Challenge to the World, Challenge to the Future



세계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에너지
하이젠 모터가 지켜가겠습니다



대표이사 김재학, 서울 공대 동창회장(기계공학과, 24회)




LOUIS CASTEL
PARIS

(주) VL&CO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02)6414-5469, 5472 www.louiscastel.com

COLOR
GOLF
WEAR
루이까스텔